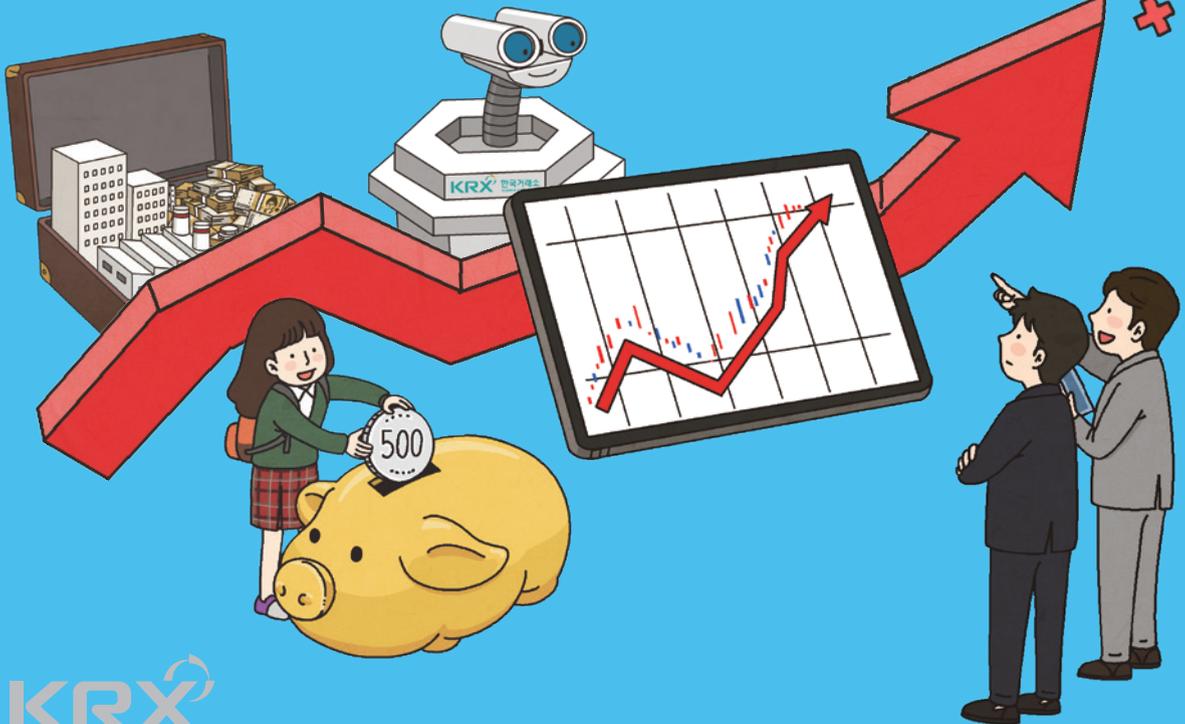


미래를 여는
청소년을 위한



증권과 투자 교실



미래를 여는
청소년을 위한



자본시장
이해하기
시리즈 2

증권과 투자 교실

KRX

CONTENTS



Chapter



돌고 돌아야 돈이다?

- 01 헌 집 줄게 새집 다오 - 물물교환부터 돈의 역사까지 • 006
- 02 돈이 돌 때 거쳐 가는 곳은? • 010
- 03 사업가는 돈을 어디서 빌려요? • 014
- 04 돈이 돌고 도는 금융시장? • 017

Chapter



비슷하지만 다른 주식과 채권

- 01 증권, 세탁소 보관증이랑 같다고? • 022
- 02 주식, 파이를 맛있게 나눠먹는 방법 • 025
- 03 채권, 본드(bond)가 뭐예요? • 028
- 04 주식과 채권, 뭐가 다르지? • 033

Chapter



증권을 사고파는 곳, 증권시장

- 01 증권시장이란? • 042
- 02 한국거래소 시장의 종류는? • 044

Chapter



증권시장, 기업이 버티는 힘

- 01 용돈기입장 쓰기가 재무활동이라고? • 054
- 02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는 두 가지 방법 • 060

Chapter



일확천금 주식투자, 사실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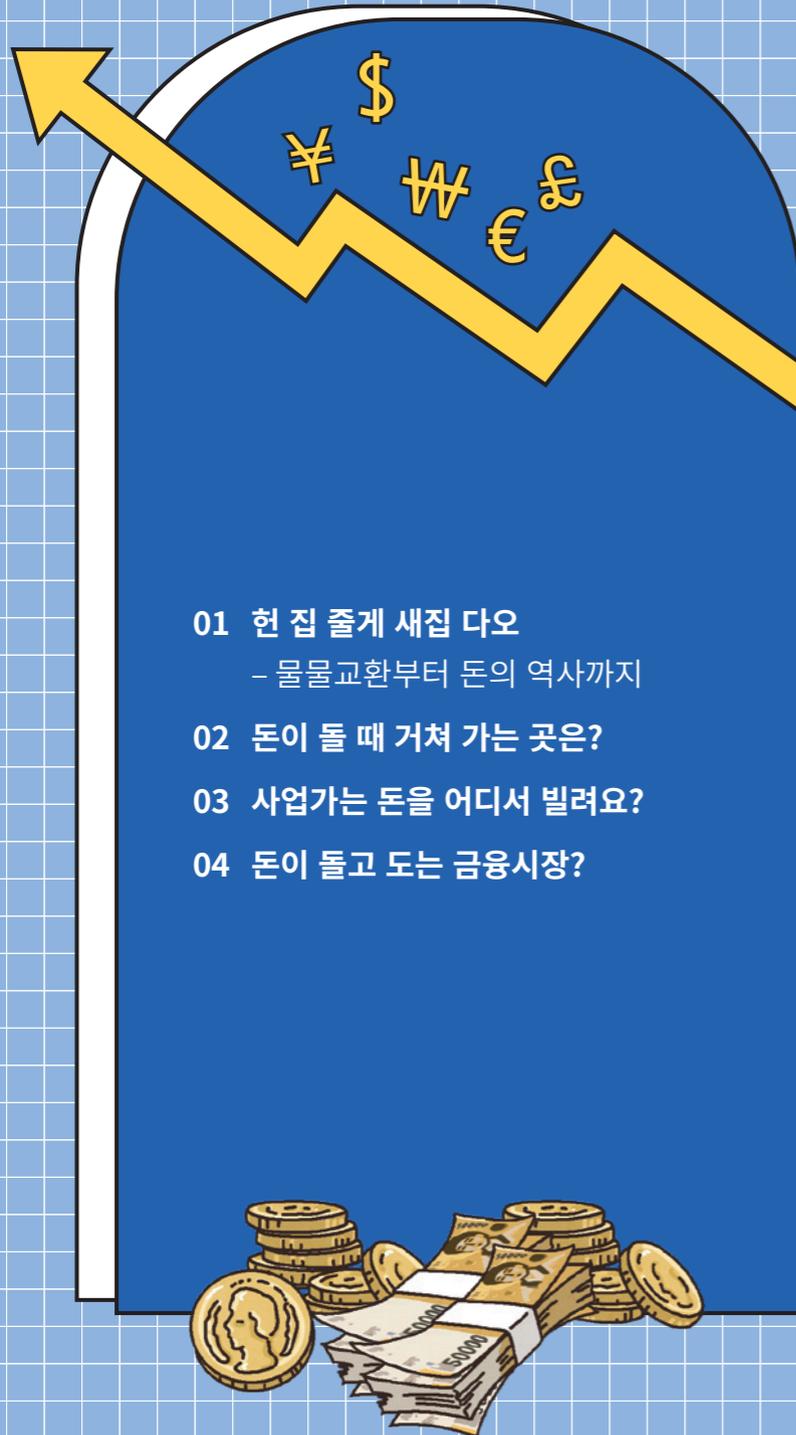
- 01 주식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 066
- 02 청소년도 주식을 살 수 있을까? • 072
- 03 시시각각 변하는데 어떻게 거래가 되나요? • 075
- 04 안전거래를 위한 '관리' • 077
- 05 불법 주식거래의 유혹? • 081
- 06 정보 없는 성공은 없다 • 085

Chapter



투자 이전에 가치관이 먼저다

- 01 마시멜로우 이야기 • 090
- 02 사자는 한 마리의 토끼사냥에도 전력을 다한다. • 094
- 03 현명한 주식투자의 원칙 • 095
- 04 돈에 대한 가치관이 미래를 결정한다. • 097



- 01 **헌 집 줄게 새집 다오**
- 물물교환부터 돈의 역사까지
- 02 **돈이 돌 때 거쳐 가는 곳은?**
- 03 **사업가는 돈을 어디서 빌려요?**
- 04 **돈이 돌고 도는 금융시장?**



Chapter
1
**돌고 돌아야
돈이다?**



돌고 돌아야 돈이다?



헌 집 즐겁게 새집 다오

- 물물교환부터 돈의 역사까지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즐겁게 새집 다오.”



놀이터에 앉아 조막손을 흙더미 속에 넣고 토닥거리며 이런 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슬며시 손을 빼면, 마치 움집 같은 토굴이 만들어지죠. 원시시대에서나 보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 시대에는 빈 동굴에서 살거나, 벗짚으로 움막을 직접 만들곤 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직접 구해야 하는 시대였으니까요. 만약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를 들어 나에게서는 사탕이, 영수에게는 초콜릿이 있습니다. 나는 초콜릿이 먹고 싶어 영수에게 바꿔 먹겠느냐고 물어보죠. 영수는 흔쾌히 바꿔먹겠다고 합니다. 원시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지만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이 없을 때는 나와 영수처럼 친구끼리 바꾸거나 나아가 다른 부족에게 “이것과 그것을 바꿔줄 수 있나요?”하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서로 바꾸는 것, 서로 주고받는 것을 ‘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건을 주고받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물물교환’입니다.

물물교환은 말 그대로 물건과 물건을 직접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돈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내가 가진 물건으로 원하는 물건을 얻을 수 있는 물물교환! 육지에 사는 사람은 쌀을, 섬에 사는 사람은 생선을 가져와 서로 맞바꾸면 되겠죠. 딱 이렇게만 생각하면 물물교환은 무척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물물교환에는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존재하는데요.

다시 사탕과 초콜릿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이제 나는 캐러멜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수에게는 초콜릿 밖에 없습니다. 마침 민재가 캐러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재에게 가서 사탕과 캐러멜을 바꾸자고 해봅시다. 그런데 아뽀싸! 민재는 초콜릿이 먹고 싶다고 하네요. 이제 영수에게 가서 내가 가진 사탕과 초콜릿을 교환하고, 다시 민재에게 돌아가 캐러멜과 교환을 해야 합니다. 영수가 과연 “그래!”하고 사탕을 바꿔줄까요? 아니면 “나도 캐러멜이 먹고 싶으니까 직접 민재한테 가서 바꿔야겠다!” 하고 말할까요? 영수의 대답에 따라 내가 해야 할 다음 행동도 달라집니다.

이렇듯 물물교환은 원하는 물건을 얻기 위해 아주 긴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수고를 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물물교환은 서로 원하는 물건이 일치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물교환에서 불편한 점은 이것 뿐일까요? 여기서는 사탕과 초콜릿, 캐러멜을 예시로 들었지만 실제로 물물교환이 활발했던,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의 사회에서는 소와 닭, 생선 등의 가축과 각종 물품들을 힘들게 들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가치의 물건을 구해서 바꾼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나는 헌 집을 주고 싶겠지만, 두꺼비는 새집을 받고 싶을 겁니다. 사탕, 초콜릿, 캐러멜에서조차 그렇습니다.

물물교환의 단점

- 1. 원하는 물건을 얻기 위해 아주 긴 시간과 수고를 들일 수 있다.
- 2. 서로가 생각하는 물건의 가치가 다를 경우 교환이 어렵다.
- 3. 교환 품목을 일일이 들고 다니기 어렵다.

자, 그렇다면 이렇듯 불편한 점을 지닌 ‘물물교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무엇을 고안했을까요? 물건의 가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했겠죠.

바로 ‘돈’입니다.

등장 초기의 돈은 물품화폐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금, 조개껍질, 쌀 등이 그러한데요. 물품화

폐도 보관과 소지가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여서 금과 은으로 된 금속화폐로 바뀌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되면서 ‘화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화폐의 기원은 로마시대 이후부터 19세기 말까지 사용되었던 ‘금화’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동전과 비슷한 형태죠. 그러나 금속화폐에도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금과 은은 그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화를 찍어 낼 수 없었죠.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금속화폐를 널리 이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윽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폐’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지폐는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보증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 종이는 가치가 있다’는 약속을 함에 따라 종이조각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동이 쉽기 때문에 각국을 쉽게 오갈 수 있었죠. 덕분에 세계 경제규모가 확장되었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진 만큼 지폐를 주고받는 단위도 커졌죠. 따라서 더 큰 돈, 고액을 보증하는 ‘수표’가 탄생했습니다. 수표는 은행에서 ‘이 사람에게는 이만 한 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입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10만 원 수표를 사용했다고 합시다. 가게는 나에게서 받은 수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을 수 있겠죠. 은행이 앞서 내가 은행에 예금한 현금을 확인한 후, 수표를 발행해주었기 때문입니다.

◦ **화폐의 역사** ◦

화폐의 기원은 로마 시대 이후부터 19세기 말까지 사용되었던 ‘금화’였다. 그러나 금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해짐에 따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폐가 통용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지폐는 자체로는 가치가 없지만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교환을 보장하기 때문에 가치를 갖는다.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폐 대신에 은행이 지불을 보증하는 고액지폐인 수표가 등장한다. 최근에는 신용 카드나 전자 화폐 등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지폐나 수표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요즘에는 어떻게?

주변을 둘러보세요. 사람들은 물건을 구입할 때 어떤 결제수단을 가장 많이 쓸까요? 최근에는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지폐와 수표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등에서도 거래내역을 안전하게 남길 수 있는 계좌이체를 사용하는 추세죠.

물물교환부터 전자화폐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돈’의 형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돈’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어떤 방식이 불편하고, 어떤 방식이 편리해 보이나요? 또 어떤 방식이 나와 잘 맞는 것 같나요? 이렇게 ‘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편, 돈은 모든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비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이면서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돈이 없으면 재화 그 자체를 저장해야만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관시 재화의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장기간 저장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은 교환의 매개수단이자 가치를 저장수단으로서, 모든 경제활동은 돈을 매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돈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쓰고, 없는 사람들은 쓰지 않으면 될까요? 돈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흐르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면? 즉, 융통(融通)한다면?

이처럼 여유있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부족한 사람이 빌려쓰는 현상을 우리는 금융(金融)이라고 합니다. 돈이 국가 경제에서 우리 몸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금융은 심장이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경제활동과 금융시장** ◦

1. 경제활동과 돈

생산과 소비를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은 돈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돈이 원활하게 회전되어야 한다.

2. 금융(金融)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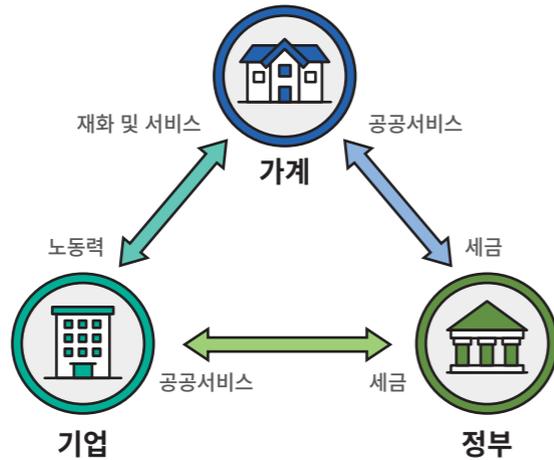
돈이 보다 더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융통(融通)해야 한다. 이처럼 여유 있는 사람이 돈을 빌려 주고 부족한 사람이 빌려 쓰는 현상을 우리는 금융(金融)이라고 하며, 금융은 국가 경제에 있어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02 돈이 돌 때 거쳐 가는 곳은?

금융은 돈을 가진 사람과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경제적 활동을 일컫습니다.

금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주체는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집단입니다. 경제의 3대 주체로는 가계와 기업, 정부가 있습니다. 가계에서는 기업에서 월급을 받아 저축과 소비, 또 세금을 납부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이때 가계에서 사용한 돈은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업은 이 돈으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정부에 세금을 냅니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여 공익을 위한 기관들, 소방서와 경찰서, 주민 센터 등을 운영합니다. 이와 같이 가계와 기업, 정부는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계: 경제 기본 단위이자 출발선

뉴스를 통해 한번쯤 ‘물가가 치솟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물가가 치솟으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소비활동을 하는 가계입니다. 가계활동은 집안의 모든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 외식, 여행 등 우리는 계속해서 돈을 소비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구입하는 참고서, 학용품 등도 가계에 포함됩니다.

가계지출을 위한 소득은 주로 부모님이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받는 임금인데요. 식당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도 있고, 은행과 증권회사 등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아올 수도 있겠죠.



가계는 생산 활동의 참여주체이자 지출의 주체로 국가경제의 기본단위이자 출발선입니다. 공부를 할 때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는 말처럼 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가 탄탄해야만 국가경제도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가계가 생산 활동을 게을리 한다면 기업은 노동력을 구하지 못해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내수경제는 물론 해외로의 수출, 수입도 곤란해질 것입니다. 또한 가계에 소득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정부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도 줄어듭니다. 소득이 적은 가계가 소비를 많이 할 수도 없으니 기업도 제품을 판매하는 게 어려워진답니다.

가계란?

1. 정의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과 지출을 운영하는 경제주체.

2. 가계소득

가계 규모는 소득의 크기에 의하여 규정되는데, 여기에는 가족이 일하여 얻은 근로소득, 장사를 하여 얻은 사업소득, 임대료·이자·배당금 등의 재산소득이 포함된다.

3. 가계는 경제활동의 최소단위

가계는 기업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으며, 임금의 일부를 저축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기도 한다. 이렇게 생겨난 소득으로 가계는 다시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소비한다. 따라서 가계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최종 생산물을 소비하는 주체이다. 이러한 가계가 경제주체 중 가장 작고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다.



기업: 이윤추구를 위한 조직

우리의 생활 전반은 기업의 생산품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얻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입니다. 기업은 재화를 팔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번 돈으로 직원들(가계)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정부에 세금을 냅니다. 또한 이윤을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합니다. 기업의 이윤이 많다면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고 이윤이 적다면 국가경제는 커녕 기업 운영조차 힘들어집니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생산 활동이 활발해짐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자리가 창출되면 가계 소득이 늘어날 테고 정부에서 걷을 수 있는 세금도 늘어나면서 국가경제를 넉넉하게 만드는 기틀이 됩니다.

정부: 공공서비스의 책임자

한 집안의 살림은 부모님이 맡아서 합니다. 그럼 나라의 살림살이는 누가 맡아 할까요? 바로 정부입니다. 불을 끄는 소방관, 도둑을 잡아 주는 경찰관, 나라의 경제 정책을 고민하는 경제 부처 모두가 정부에 속합니다.

국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거래물품이 원활히 오고 갈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해야 할 텐데요. 국내 길에는 도로가, 국외 길에는 항구와 공항이 필요합니다. 이 때 국가에서는 세금으로 도로를 뚫고 항구 및 공항을 세우야 기업이 수출입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과 관련한 법에 따라 횡령, 탈세 등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감시합니다. 소방서, 경찰서, 주민 센터도 전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듯 세금은 국가를 꾸리는 데에 꼭 필요한 돈입니다. 편히 쉴 수 있는 근린공원을 만드는 데에도, 거리를 청소하는 데에도 세금이 쓰입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사용됩니다.”

가계는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얻고 기업은 생산품을 가계에 제공하면서 받은 대가로 이윤을 냅니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정부는 가계와 기업이 제공할 수 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고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범죄자를 벌하는 등 이윤추구가 아닌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죠. 또한 정부는 가계가 마음 편히 생활하고 기업이 유연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업이란?

1. 정의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자본의 조직단위.

2. 생산의 주체, 기업

기업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경제적 조직의 단위체이므로 소비경제의 단위체인 정부·가계와 구별된다.

3. 기업의 이윤추구

기업은 다른 경제주체, 가계나 정부와는 달리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최근에는 기업이 이윤의 극대화가 아닌, 그 생존에 필요한 만족이윤을 유지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이익의 증대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W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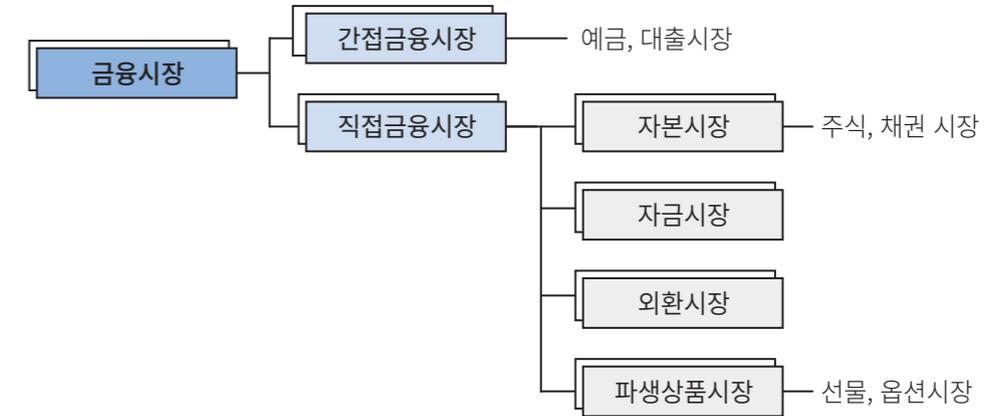
사업가는 돈을 어디서 빌려요?

지금까지 경제의 3대 주체를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경제활동의 출발선인 가계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기업, 국가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 정부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 이해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다시 금융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경제주체 중 기업은 저축보다는 투자를 많이 하여 돈이 필요한 반면에 가계는 소비도 하지만 저축도 많이 하므로, 금융은 주로 가계와 기업 간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금융이라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금융시장(financial market)이라고 하며, 바로 이곳을 통해 기업들은 기업 활동에서 중요한 투입 요소 중에 하나인 자본(capital)을 조달하게 됩니다. 물론 가계에서도 자동차·주택 등의 구입을 위해서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도 세금으로 거둬들인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 추가적으로 자본이 필요할 수 있죠. 이렇듯 금융은 자본이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므로 한 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투자보다 저축을 많이 하는 가계를 자금의 공급자, 저축보다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을 자금의 수요자라고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은 자금의 중개 방법에 따라 ①간접금융시장과 ②직접금융시장으로 구분됩니다.

간접금융시장은 은행에 '저축', 직접금융시장은 주식, 채권 등에 '투자'



간접금융시장과 직접금융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업의 신용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입니다.

간접금융시장에서는 은행이 중간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빚을 저도 공급자인 가계에는 영향이 오지 않습니다. 은행은 가계로부터 저축을 받고 낮은 이자를 주는 반면, 기업에게는 높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어 그 차이만큼의 이익을 얻습니다. 기업이 파산해도 간접금융시장에서 가계는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금융시장에서는 원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중개기관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신용위험을 가계가 말 그대로 '직접'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간접금융시장과 직접금융시장을 나누는데 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요? 은행은 대표적인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돈을 가진 사람과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기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보관해주고 빌려주며 해외에 돈을 이체해주는 일도 합니다.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도 금융기관에 속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만났을 때는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증권회사를 통해 회사의 증권을 사고 팔 수도 있지요. 사업가가 돈을 빌리는 곳도 바로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은 크게 은행과 은행 외의 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업가는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은행에서는 돈을 저축하고 빌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행에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을 저축하고 이자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은행에 목돈을 맡긴다고 하면 은행에서는 1년이 지난 후에 목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줍니다.

간접금융시장	직접금융시장
▶ 간접금융시장은 자금 공급자(가계)와 자금 수요자(기업) 사이에 은행과 같은 금융중개기관이 개입되어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가계에서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저축하고, 이자를 받습니다. 은행은 우리가 저축한 자금을 모아 기업에 대출해주거나 채권을 구입합니다. 가계는 은행을 통해 기업과 간접적으로 금융관계를 맺습니다.	▶ 간접금융시장에 금융중개기관이 개입되어 있다면 직접금융시장은 중개기관이 개입하지 않은 시장입니다. 자금 수요자(기업)가 자금 공급자(가계)에게 직접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때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이 복잡한 업무를 대행해줍니다. 직접금융시장은 곧 주식·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증권시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왜 이자를 붙여서 돌려줄까요? 은행은 나와 다른 예금자들이 맡긴 저축액으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합니다. 은행에서는 기업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빌려주고 후에 빌려준 돈의 이자를 붙여 돌려받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은행을 우리는 ‘일반은행’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일반은행 말고도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데요. 우리나라의 돈을 관리하여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돈의 양을 조절합니다.

이밖에 같은 은행이라고 해도 일반은행과는 다른 특수한 은행이 있습니다. 설립 목적이 특수한 은행으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 등도 있는데요. 일반은행이 하는 일도 하지만 이 은행들은 특별한 법에 따라 설립되어, 그 은행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사업가는 비은행 금융기관에서도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는 증권회사가 있습니다. 기업의 증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인데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고 있습니다. 증권 회사는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사고파는 일을 담당하는데, 투자자로부터 부탁받은 증권을 대신 사주거나 팔아 주고 수수료를 받아 이윤을 창출합니다. 어른들이 ‘주식이 올랐다 또는 떨어졌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증권회사는 주식, 채권 등 증권관련상품을 거래하는 곳으로, 증권회사가 아닌 투자자가 신용위험을 지기 때문에 직접금융시장에 속합니다.

비은행 금융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마을금고 2. 상호저축은행 3. 신용협동조합 4. 우체국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종합금융회사 6. 보험회사 7. 증권회사
--	---

04 돈이 돌고 도는 금융시장?

직접금융시장에는 금융자산의 만기(maturity)에 따라 은행예금처럼 1년 이내의 짧은 단기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자금시장(money market)과 1년 이상의 장기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자본시장(capital market)이 있습니다. 자본시장은 주식이나 채권, 장기자금 대출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도 주식, 채권과 같은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증권시장(securities market)이라고 합니다.



증권시장과 경제주체의 관계

흔히 ‘자본주의의 꽃’이라 할 정도로 증권시장은 자본주의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의의와 비중이 높습니다. 증권시장이 경제의 3대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가 자금을 융통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가계의 입장

증권시장은 가계를 비롯한 각종의 경제주체가 자신의 여윳돈을 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거나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금하는 것이 투자의 주

요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파르게 변하는 경제상황 속에서 가계도 전통적으로 수행해온 경제역할인, 저축과 소비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증권시장에 뛰어들어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㉞ 기업의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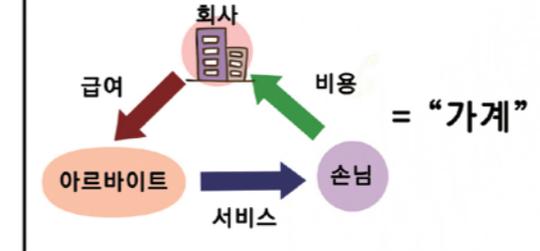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한 조직이라고 배웠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최대한 많이 얻기 위해서는 앞서가는 기술력으로 신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를 위해 광고도 만들 것이며, 해외 수출을 위한 새로운 공장도 필요합니다. 이렇듯 현대 기업들은 막대한 시설 투자와 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증권시장을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산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㉟ 정부의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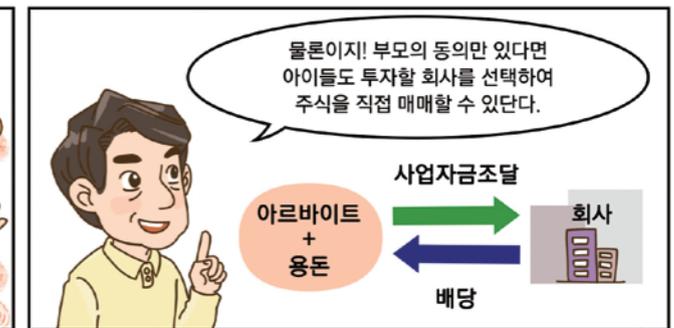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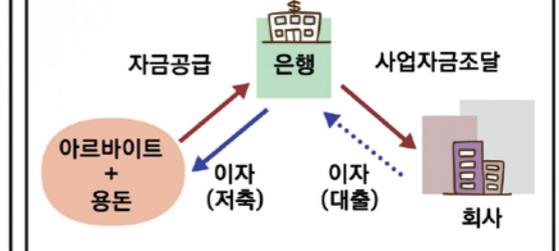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도로, 항만, 공해처리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의 건설과 그 외 각종 자원의 개발, 기간산업의 육성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자금을 충당합니다. 정부 또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통화조절을 위해서 증권시장을 통해 직접 혹은 간접의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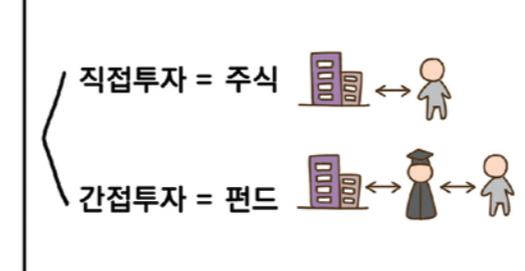
네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과 내가 회사에서 돈을 버는 것 모두 경제활동이라고 한단다. 금융주체인 가계와 회사 사이에 돈이 돌고 도는 것을 금융이라고 하지. 국가 경제가 살아나려면 금융이 활발해야 하는데, 너도 금융 활동에 이바지를 한 셈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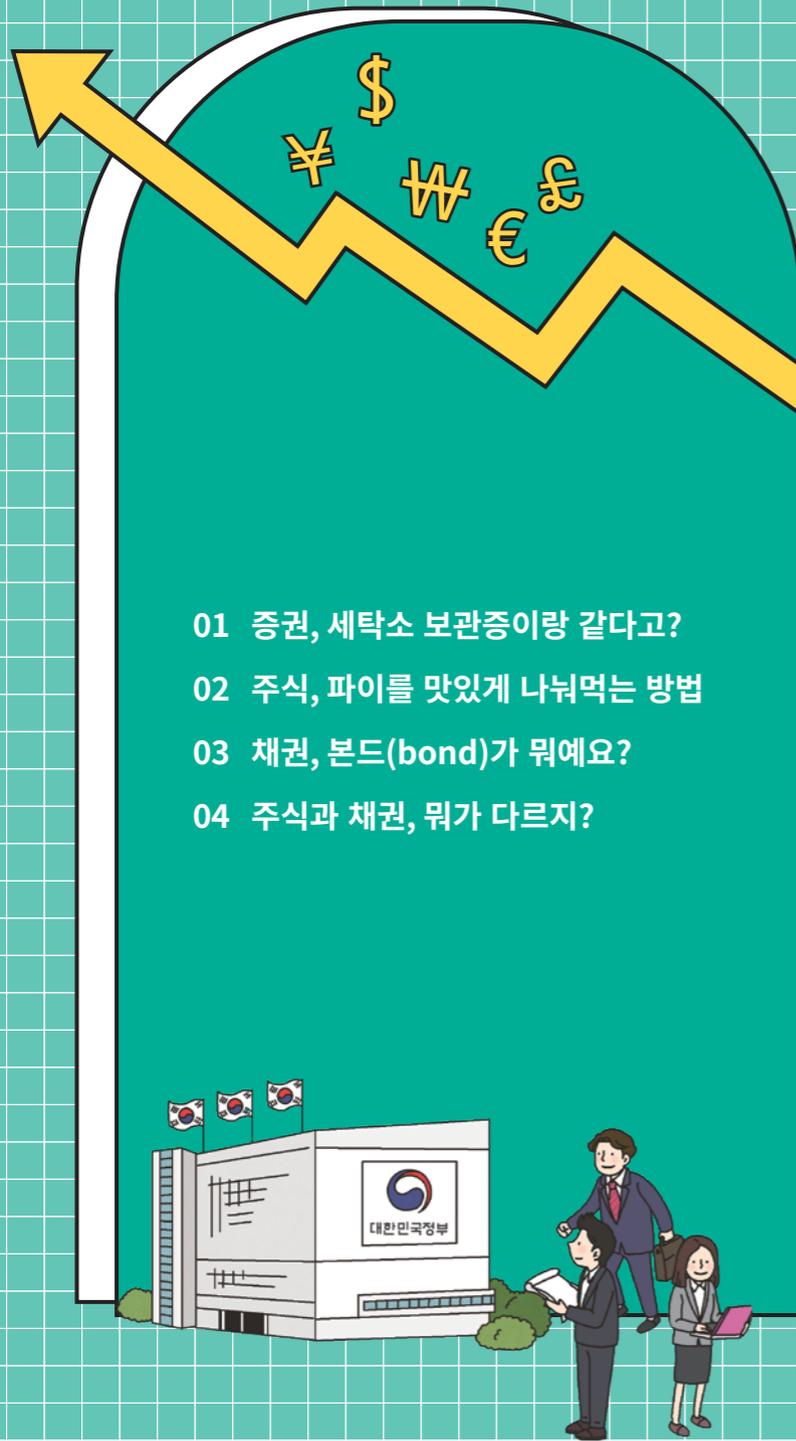


돈을 저축하는 것도 금융활동이란다. 용돈과 아르바이트비를 은행에 저축하면 그 돈은 은행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빌려주게 되니 말이다. 은행에서 너에게 주는 이자가 바로 이런 금융활동의 부산물이지.



주식은 어른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단다. 직접 매매하여 원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 수도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펀드를 매매할 수도 있지.





- 01 증권, 세탁소 보관증이랑 같다고?
- 02 주식, 파이를 맛있게 나눠먹는 방법
- 03 채권, 본드(bond)가 뭐예요?
- 04 주식과 채권, 뭐가 다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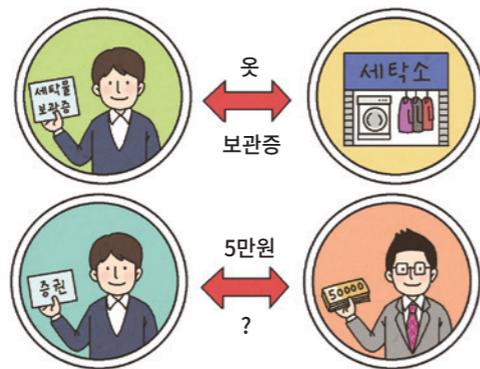
Chapter
2
비슷하지만
다른
주식과 채권

2

비슷하지만 다른 주식과 채권

01 증권, 세탁소 보관증이랑 같다고?

증권은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나타낸 증서를 말합니다. 어음, 수표, 주권, 채권, 선화증권, 창고증권 등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서를 통틀어 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증권은 재산을 주고받으며 거래하기 위해 생긴 문서인 셈입니다. 증권은 증거증권과 유가증권으로 구분됩니다.



생각해 보기

1.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면 보관증을 받습니다. 나와 세탁소 사이에는 권리, 의무 관계가 생겼습니다.
2. 나는 영수에게 차용증을 받지 않고 5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나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앞서 두 사례는 증거증권에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차용증'을 씁니다. 차용증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렸다고 증명하는 문서인데요. 영수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으면, 나는 약속된 금액을 약속된 날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영수에게는 당연히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렇듯 나와 영수 사이는 차용증이, 나와 세탁소 사이는 보관증이 증명해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관계를 증명하는 증서를 '증거증권'이라고 합니다. 증거증권에는 차용증, 보관증 뿐만 아니라 운송장, 수취증서, 영수증, 우표, 항공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증권이 없다면, 재산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증거증권은 어디까지나 증거에 불과합니다. 증거증권은 진짜 권리자에게 의무를 이행해야만 하는 증권입니다. 권리관계의 존재와 내용을 '표시만' 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유가증권은 쉽게 말해 돈으로써 가치가 있는 증권을 뜻합니다. 금전, 화물 등 실제로 존재하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권리, 재산권이 표시된 증서입니다.

유가증권은 이 재산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넓은 의미의 증권은 재산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을 의미하는데요. 크게 상품증권, 화폐증권, 자본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의의

증권이란?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나타낸 증서. 증권은 증거증권과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나,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청구권을 증서로 표시한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증거증권	유가증권
정의	재산법상의 일정 사실을 기재하여 그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는 증권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개인의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특징	권리를 증명함에 지나지 않는다. 권리의 발생·행사·이전에 증권의 점유(占有)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권리와 증권과의 결합을 기초로, 권리의 이전·행사를 원활·안전하게 한다. 유가증권은 전부가 증거증권이 된다.
예	운송장이나 차용증서, 수취증서, 영수증, 우표, 항공권 등	화물상환증·선화증권·창고증권 (상품증권) 어음·수표·은행권 (화폐증권) 공사채권·기명주권 (자본증권)

㉠ 상품증권

그렇다면 유가증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상품증권부터 설명해보겠습니다. 왠지 상품권이 생각나지 않나요? 우리는 문화상품권으로 서점에서 책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영화관에서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문화상품권이 책을 살 수 있는 권리와 영화를 볼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백화점 상품권도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을 무엇이든 구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백화점에서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상품권에 써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상품증권은 상품을 찾을 수 있는 권리를 담은 증권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화상품권, 백화점 상품권을 들 수 있습니다.

㉡ 화폐증권

화폐증권은 단어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듯 ‘화폐’를 뜻합니다. 지금 당장 지갑을 열어보세요. 지갑에 무엇이 있나요? 천 원? 만 원? 지갑 속의 지폐가 바로 화폐증권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지폐를 지불하면 그 지폐는 음식점 주인이 가집니다. 그러면 음식점 주인은 그 지폐로 식재료를 사옵니다. 지폐는 다시 식료품점 주인이 가지고 식료품점 주인은 식료품을 구입하는 데에 지폐를 씁니다. 이처럼 화폐증권은 유통수단으로서 화폐를 대표하는데요. 지폐, 수표, 어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 자본증권

우리는 화폐증권인 지폐, 수표, 어음을 통해 자본이 원활하게 회전하고 유통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화폐증권보다 더 자본을 들었다 놔다하는 증권이 있습니다. 이를 자본증권이라고 합니다. 자본증권은 내가 가진 자본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를 증명하는 증서입니다. 대표적인 자본증권으로는 주식과 채권이 있습니다. 투자를 위해서 사람들의 자금을 모아 관리하는 수익증권도 있습니다. 자본증권은 증권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되는 증권인 만큼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증권들이 가치가 있으려면 증권을 발행한 주체가 증권을 소지한 사람의 권리를 성실히 보장하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믿음이 깨지면 증권은 가치 없는 휴지조각이 됩니다. 믿음이 확실한 증권은 값이 올라가는 반면, 믿음이 희박한 증권은 값이 내려갑니다. 증권의 가치는 믿음, 즉 신용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02

주식, 파이를 맛있게 나눠먹는 방법



어떻습니까? 파이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민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투자자가 돈을 투자했다는 증거로 회사에서는 주식을 발행하게 됩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주주라고 하며, 회사에 대한 소유권 및 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주주에게는 의무와 책임 외에도 당연히 권리가 있습니다.

주주의 권리는 크게 이익배당청구권이 있습니다. 주식에 부여된 몫(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민재가 파이 수익금의 25%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주주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하면 배당도 없습니다. 또한 주주에게는 기업경영에 주요 의사결정자로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도 있습니다.



이번 달 신제품 파이 생산에 대해 나와 민재는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나는 딸기파이가 만들고 싶고 민재는 치즈파이가 더 잘 팔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딸기파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나는 파이 수익의 75%를, 민재는 25%만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회사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주가 영향력이 제일 크겠죠.

이번에는 주식의 종류를 알아보을까요?

㉠ 보통주와 우선주

일반적으로 주식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주(common stock)를 뜻합니다. 보통주는 주주평등의 원칙(1주 1의결권)에 따라 의결권이 있으며, 보유한 주식만큼 수익을 배당받습니다. 어른들이 흔히 주식투자를 한다고 할 때 말하는 주식이 바로 보통주입니다.

보통주가 있으면 이익배당청구권, 의결권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주(preferred stock)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주주인데 의결권이 없다니 조금 의아합니다. 어쩌서 의결권 없는 주식, 우선주를 살까요?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기업이 수익을 내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지만,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해 회사 경영을 좌지우지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회사는 바로 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발행합니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1% 정도 높은 배당을 받습니다. 이렇듯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수익이나 남은 재산을 나눠줄 때 우선적 지위를 가집니다.

㉢ 의결권주, 무의결권주

의결권주는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주식입니다.
무의결권주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지만 보통주보다 배당을 먼저 받거나 많이 받는 주식입니다.

주식에는 1주에 1개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주는 모두 의결권주가 됩니다. 즉, 1주에 대해 1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의결권주는 회사경영에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이익을 받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주식입니다.

㉣ 액면주·무액면주

액면주는 발행 당시 액면가액이 적힌 주식입니다.
무액면주는 액면가액이 적히지 않은 주식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발행된 액면주식의 금액은 같아야 하고 1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무액면주는 주식가격 표시 없이 주식이 몇 개인지만 쓰여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액면주식이나 결손으로 주식의 실질가치가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 신주발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액면가를 정하지 않은 무액면주식 제도를 2012년 4월 15일 상법개정시 도입하였습니다.

W 03

채권, 본드(bond)가 뭐예요?

우리는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립니다. 마땅한 담보가 없다면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씁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가 있듯이 회사에도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가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주주가 나타나길 바라며 주식을 많이 발행하면 될까요? 그러나 아무도 주식을 사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도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쓰면 될 텐데요. 회사가 돈을 빌리고 그 증거로 써주는 차용증을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채권은 차용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채권에도 ‘○월 ○일에 빌려주신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 총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적혀있으니까요. 즉, 채권은 돈을 빌릴 때 얼마를 빌리고 이자는 얼마를 줄 것이며 언제까지 돈을 쓰다가 이자와 함께 돌려주겠다고 쓴 일종의 차용증서입니다.

채권이란?

기업이나 정부, 지자체 등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면서 정해진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약속한 증권

채권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채권은 여러 명의 투자자가 같은 조건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영수와 민재, 둘 다 파이회사에 똑같이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을 팔면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으며 영수가 민재에게, 민재가 영수에게 양도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또한, 주식과 다르게 처음부터 이자율과 이자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 주식이 아닌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채권에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정성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익성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파이회사의 주식을 사면 매일매일 주식이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살펴봐야 하지만 채권을 산다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는 파이회사에서 ‘○○원을 빌려주시면 1년마다 이자 5%를 드리고 원금은 10년 뒤에 갚겠습니다.’하고 발행한 채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채권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습니다.

만 원에 산 주식을 2만 원이 됐을 때 팔면 나에게서는 만 원의 이익, 즉 시세차익이 생깁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도 주식처럼 가격이 변하며,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채권투자를 할 경우에는 ①채권을 보유하며 얻을 수 있는 수익성, ②채권 발행자가 채무를 불이행(default risk)할 경우 즉, 돈을 갚지 않을 위험성, ③원하는 시기에 채권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채권을 보유하면 채권자가 됩니다.

채무자 즉, 빚을 진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내 자동차를 담보로 해서 빚을 얻으면 나는 채무자, 은행이 채권자가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약속한 기한 내에 빚을 갚지 않으면 담보로 잡았던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수익·자산에 대해 계약조건 내에서 청구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는 주주와 달리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나 회사의 수익에 상관없이 확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파산할 경우에는 주주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영수가 파이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고 민재가 채권을 갖고 있다면 파이회사가 망했을 때 민재가 먼저 투자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까요?

채권의 종류는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합니다만 여기에서는 채권을 발행한 주체에 따른 채권의 종류를 소개하겠습니다.

㉠ 국채

국채는 국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쓰듯이 정부도 국민에게 돈을 빌리면 그 증거로 차용증을 써주어야 합니다. 이때 정부가 돈을 빌리고 써주는 차용증을 ‘국채’라고 합니다. 국채는 대체로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 발행되며 국고채,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② 지방채

국채가 국고를 채우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라면 지방채는 서울시,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대규모 공공시설사업, 공영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지방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행하는데요.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보다 발행규모가 작고 신용도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국채보다 유동성(채권을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이 낮은 편입니다. 대표적인 지방채로는 지역개발공채를 들 수 있으며 그밖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도시철도공채 등이 있습니다.



③ 특수채, 회사채

특수채는 공공단체, 공공기관 등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별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특별법인으로는 한국토지공사·한국도로공사 등이 있는데요. 특수채 역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회사채에 비해 안전하고 국채에 비해 수익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수채로는 한국전력공사채권, 토지개발채권,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및 중소기업금융채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통화를 관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산업금융채권과 중소기업금융채권은 산업 및 중소기업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채권입니다.

회사채는 말 그대로 회사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그 증거로 써주는 차용증이 회사채입니다.

국채의 종류	
국고채	국가의 예산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채권. 대한민국 정부가 공공 목적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그 발행규모가 가장 크며 역할이 중요하다.
재정증권	국고에 있는 돈을 넣고 빼는 출납과 통화금융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재정증권의 발행금액은 국회의 의결을 얻은 최고액을 넘어서는 안 되며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재정증권은 주로 일시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된다.
국민주택채권	국민들의 주택자금 지원을 위하여 발행.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며 무기명증권이다.
외평채 (외국환평형 기금채권)	환율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 외국 돈을 관리하며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행한다.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기업 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 화폐인 원화의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조성되는 자금이다. 외평채는 국회 동의를 거쳐 발행되며 한국은행에서 발행과 운용을 맡는다.

※회사채를 발행할 때는 꼭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함부로 회사채를 발행했다가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파이회사에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천만 원을 모았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런데 영수가 천만 원을 들고 사라져버리면 회사채를 산 사람들에게 어떻게 돈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법은 회사채를 발행하는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두었습니다.



W
04

주식과 채권, 뭐가 다르지?

회사의 자본, 주식

주식은 회사에 자본을 투자하는 개념이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값아야 할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기 일도 없습니다. 회사의 가치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투자금액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거둘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채권은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빚입니다.

채권은 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투자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투자를 받습니다. 채권은 회사에서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므로 투자자에게는 주식보다 안전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채권에는 만기일이 있으며 만기일에 원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약속한 금리가 있으므로 만기 시에 얼마를 돌려받게 될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의 비교

구분	주식	채권
자금조달방법	자기자본	타인자본
발행자	주식회사	정부·지자체·특수법인·주식회사
존속기간	영구적	한시적
소유자의 지위	주주	채권자
원금상환	상환의무 없음	만기 시 원금상환
이익형태	배당·가변적	이자·확정적
경영참가	있음	없음

주식의 발행자는 주식회사인 반면, 채권의 발행자는 정부와 지자체, 특수법인 및 주식회사로 다양합니다. 주식은 상환의무가 없기에 존속기간이 영구적이거나 채권은 만기 시 원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2년, 3년 등과 같이 한시적으로 기간이 정해집니다.

주식을 소유한 사람의 지위는 주주로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동업자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채권을 가진 사람은 채권자일 뿐, 회사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식의 가격은 주변 환경에 따라 수없이 바뀌지만 채권은 산 시점부터 만기 시에 받을 원금과 이자를 알 수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의 개념과 자신이 원하는 투자방향을 잘 파악하면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할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는 투자자의 투자욕구가 다양한 방향으로 변하면서 주식과 채권의 명확한 특성이 점차 흐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주식의 수익성과 채권의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주식관련 채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시다.

주식의 수익성과 채권의 안정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을 ‘주식관련채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채권으로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이 있는데요. 이름부터 너무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BW; Bond with 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채권을 살 때 발행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도 따라오는 채권입니다. 쉽게 말해서 잡지를 사면 부록이 딸려오는 것처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면 회사에서 새 주식을 발행 했을 때 좋은 조건에 살 수 있는 권리가 따라옵니다. 이를 ‘신주(새로운 주식)를 인수하는 권리’, 즉 신주인수권이라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채권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면서 채권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채권의 이자소득과 새 주식을 살 때 얻을 수 있는 배당수익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어서 좋겠죠?

그러나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만’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으로 주식을 사면 사는 정해진 금액만큼 돈을 내야 합니다. 물론 신주인수권을 행사해도 채권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채권자로서의 권리도 그대로입니다. 이는 다음에 설명할 전환사채와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전환사채는 일반채권과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권리를 지니고 있는데요. 바로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환사채는 주식과 채권의 특징을 모두 가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물론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처음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일반 채권과 똑같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주식전환권’이라는 것이 발동합니다. 이 주식전환권이 발동하면 투자자가 원할 때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시를 살펴볼까요?

주식

- 회사 경영에 관심
- 큰 수익을 얻고 싶음 (위험부담도 큼)



채권

- 위험부담 최소화
- 수익보다는 안전한 투자



나는 파이회사에 5년 동안 100만원을 빌려주고 한 달에 2천 원씩 이자를 받는 일반채권을 가지고 있고, 영수는 5년 동안 100만원을 빌려주고 한 달에 1천 원씩 이자를 받는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마침 파이회사에서 신상품 출시로 파이회사 주식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영수는 주식전환권이 발동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고 주식시장에서 200만원에 주식을 팔아 전환사채를 통해 1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전환사채는 주식전환권을 사용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과 채권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전환사채는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다르게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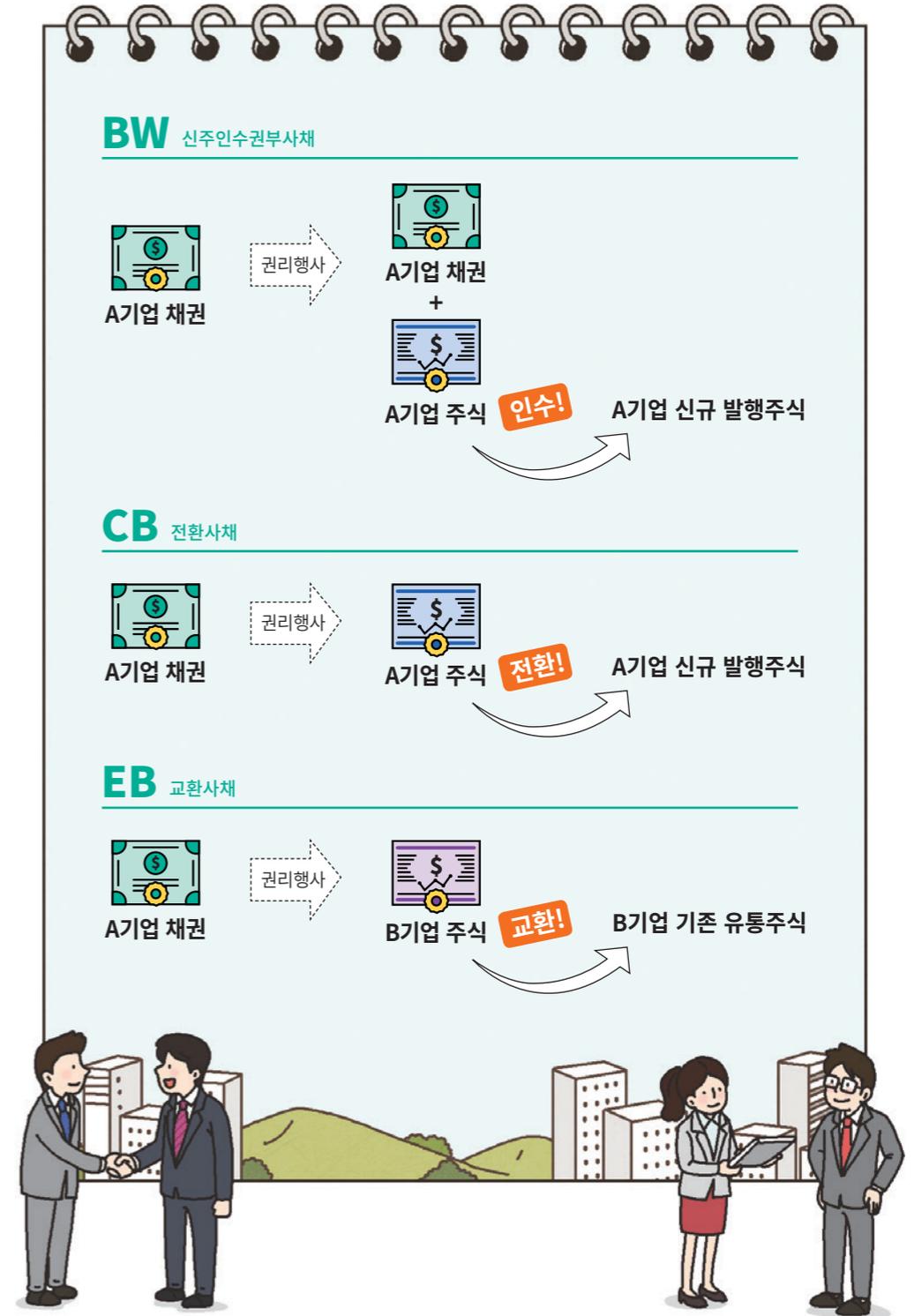
전환사채는 주식전환권이 발동하므로 일반채권보다 이자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성장할 것이나 현재 투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회사에서 주로 발행합니다.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전환사채의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어떨까요? 전환사채를 사두면 일단 채권으로 이자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회사가 성장해서 주가가 오르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예시의 영수처럼 말입니다.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

회사는 채권을 발행하고 만기가 도래하면 돈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 대신 다른 회사의 주식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미리 부여하는 것이 교환사채입니다. 즉, 전환사채가 ‘파이회사 채권 ↔ 파이회사 주식’이라면, 교환사채는 ‘파이회사 채권 ↔ 사탕회사 주식’이 가능합니다.

교환사채는 ○○회사 채권을 전혀 다른 회사의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회사 주식을 내어주지 않아도 되므로 지분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교환사채를 보유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으니 설레지 않을까요? 이렇듯 교환사채와 전환사채는 모두 일정기간 내에 채권을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안정성과 주식의 수익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간접투자상품. 펀드!** ◉

1. 펀드란 무엇인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운용한 후 그 결과를 돌려주는 간접 투자 상품. 직접투자는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 등을 직접 골라서 투자하는 것이고, 간접투자는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자가 가입하는 것이다. 즉 간접투자는 펀드투자와 같은 의미이다.

2. 펀드의 장점

적은 돈으로도 쉽게 투자할 수 있다.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려면 목돈이 필요하지만 펀드는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또한 펀드는 주식 및 채권 등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함에 따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주식, 채권 및 부동산 등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산운용 전문가가 대신 투자하므로 훨씬 안전하다.

3. 펀드의 종류

구분	투자대상	펀드특징	
증권펀드	주식형	주식에 60%이상 투자	고위험, 고수익
	혼합형	주식에 60%이하 투자	안정성, 수익성
	채권형	채권에 60%이상 투자	안정성
MMF	단기금융상품	수시로 입출금	
파생상품펀드	선물, 옵션	구조화된 수익	
부동산펀드	부동산	환금성에 제약이 따르지만 장기투자를 통한 안정적 수익 추구	
실물펀드	선박, 석유, 금 등 실물		
특별자산펀드	수익원 및 출자지분		
재간접 펀드	다른 펀드	분산투자	

4. 펀드의 위험요소

펀드는 항상 가격변동의 위험을 안고 있다. 펀드가 투자한 주식, 채권, 부동산은 언제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업의 부도 위험을 안고 있다. 펀드가 투자한 주식,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부도, 파산 등의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금리변동의 위험도 있다. 금리 상승 시 펀드가 투자한 채권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환율변동 위험 또한 고려해야 한다. 환율변동에 따른 외화자산의 가치변동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증권시장은 장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펀드투자기간을 장기간으로 늘리고, 한 번에 전액을 펀드에 투자하기보다는 일정 금액을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 하는 길이다.





- 01 증권시장이란?
- 02 한국거래소 시장의 종류는?



Chapter
3
증권을
사고파는 곳,
증권시장



증권을 사고파는 곳, 증권시장

01 증권시장이란?

여러분은 ‘시장’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파는 농산물 시장도 떠오르고 갯 잡아 올린 생선과 꽃게 등이 있는 수산물 시장도 떠오를 텐데요. 그렇다면 증권시장에서는 무엇을 사고팔까요? 농산물 시장에서는 농산물을 사고팔고 수산물 시장에서는 수산물을 사고팝니다. 자, 그럼 증권시장은?

그렇습니다. 증권시장에서는 ‘증권’을 사고팝니다.

딸기가 너무 먹고 싶을 때 시장이나 슈퍼, 마트 등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서 아주 멀리 있는 딸기농장까지 찾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중간상인들은 딸기농장에서 딸기를 사서 소비자에게 되팝니다. 덕분에 우리는 가까운 시장에서 편리하게 맛있는 각종 과일과 채소를 손쉽게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증권시장도 사람들이 주식과 채권과 같은 증권을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입니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증권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발행시장은 말 그대로 증권이 발행되는 시장, 즉 증권이 태어나는 시장을 말합니다. 유통시장은 이렇게 태어난 증권을 사람들이 유통하는 시장, 다시 말해 사고파는 시장을 일컫습니다.

㉠ 발행시장

발행시장은 회사가 증권을 만들어 처음 투자자에게 팔릴 때까지의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파이공장에서 생산된 파이가 처음 소비자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우리는 파이를 사기 위해 직접 공장으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시장이나 마트에서 삽니다. 파이가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 중개업자들의 유통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 들어오듯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나누어주고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때, 중개업자에 해당하는 ‘증권회사’를 거칩니다.

나는 파이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모으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이때 투자자를 일일이 찾아다니기 어려우니 중개업자인 증권회사에 찾아갑니다. 증권회사는 파이회사 증권을 살 의향이 있는 투자자를 찾아 연결해줍니다. 이와 같이 발행시장은 회사가 증권을 만들어 처음 투자자에게 팔릴 때까지의 과정을 의미하는 1차 시장입니다.

㉡ 유통시장

발행시장이 1차시장이라면 유통시장은 2차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행시장에서 발행된 증권을 사고파는 시장이 유통시장인데요. 흔히들 증권시장이라고 할 때 우리는 유통시장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통시장에는 구체적이고 조직화된 거래소 시장과 조직화 되지 않은 장외시장이 있습니다.

증권시장의 구분			
증권시장	발행시장	회사가 증권을 발행하여 처음 투자자에게 팔릴 때까지의 과정을 의미한다.	
	유통시장	거래소 시장	구체적이고 조직화된 일정한 매매거래제도에 따라 증권거래가 이루어진다. 주식시장(유가,코스닥,코넥스), 채권시장 등
		장외 시장	거래소 시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매매되는 비조직적인 시장을 모두 포함한다. 직접거래시장, 창구거래(OTC), 채권시장

거래소 시장이 일정한 거래규칙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안정된 시장이라면 장외시장은 거래소시장 밖에서 증권을 사고파는 비조직적이고 추상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통시장 중에서도 거래소 시장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02 한국거래소 시장의 종류는?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은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개설 운영되고 있는 증권시장(주식시장, 채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거래소에서 개설 운영되고 있는 시장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이란?

증권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증권시장에 참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여 주문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 주문이 가능해졌습니다. 증권시장의 중개업자인 증권회사는 이렇게 모인 투자자들의 주문을 받아서 증권시장에 대신 제출합니다. 이렇게 모인 주문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거래하는 장소가 바로 한국거래소가 개설·운영하고 있는 증권시장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운영 중인 증권시장에서는 상장된 회사의 증권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이 전산화가 되어 있어 거래 과정이 빠르고 정확하며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BTS가 소속된 (주)빅히트의 상장기념식

‘상장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 등이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 중인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식이나 채권 등이 한국거래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상장’이라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믿고 거래 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① 주식시장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식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생긴 것이 유가증권시장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전신인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된 1956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어 그 역사와 전통이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은 1996년에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개설되었고, 코넥스 시장은 2013년에 개설되었습니다.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기 어려운 초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입니다.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 설립 당시 건물 전경

1 - 유가증권시장 (KOSPI Market)

한국거래소의 시장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입니다. 그 역사만큼 검증되고 실력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회사의 규모도 크고 경영실적도 안정적인 중대형 우량기업의 주식이 거래됩니다. 예를 들면, LG,

삼성, 한화, 현대와 같은 대기업들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아~ 거기!’하고 알 법한 기업이죠? 브랜드가 잘 알려졌다는 것은 그만큼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투자를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유가증권시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대형 우량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시장입니다.

2 - 코스닥시장 (KOSDAQ Market)

코스닥시장은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시장과 유사한 시장입니다. 코스닥시장에는 주로 IT(정보 기술), BT(바이오기술), CT(문화기술)와 같은 기술기업과 벤처기업이 주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기업부터 이름이 생소한 신생회사까지 다양한 기업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비하여 규모는 작으나 성장잠재력은 큰 기업들이 상장된 젊은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 코넥스 시장 (KONEX Market)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중소기업이라면 코넥스 시장의 문을 두드려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기업을 위한 시장입니다. 중소기업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업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엄격한 심사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자금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서 코넥스 시장은 신생기업 및 초기 중소기업에게 매우 반가운 시장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위험성을 고려하여 투자자 또한 어느 정도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㉞ 채권시장

채권은 쉽게 설명하면 ‘돈을 빌리고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는 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채권을 발행하는 측에서 빌린 돈과 이를 갚기 위한 상환조건 등을 표시한 증권’입니다. 그렇다면 주식도 있는데 굳이 비싼 이자를 지불하면서까지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채권은 주식에 비해 대량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에게 위험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채권은 발행 주체가 법적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인, 주식회사처럼 신용도가 검증된 곳에서만 채권은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제약과 보호를 받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채권시장에서 투자자는 국채, 회사채 등을 표준화된 거래조건과 절차를 밟아 편리하게 거래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거래소에서는 국채를 위주로 하는 거래가 활발합니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거래 단위가 무려 100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채권시장이나 소액채권시장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을 고려해 1,000원 단위로 거래됩니다. 이렇게 거래소 채권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은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채권의 가격을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㉟ 파생상품시장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에서 파생되어 나온 상품입니다. 기초자산에는 주식과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 뿐 아니라 원유, 곡물, 달러화 등도 포함되며 파생상품은 기초자산 가격 등의 변동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TV와 신문, 인터넷 등으로 뉴스를 접합니다. 경제뉴스에서는 매일 물가와 환율, 금리, 주가 등이 변하는 상황을 전달합니다. 물가가 항상 안정적이면 좋겠지만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현재 시점에서 최대한 없애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파생상품입니다. 파생상품은 곡물(옥수수, 쌀 등), 원유, 주식, 채권 등의 가격이 변화할 때, 그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된 금융상품입니다.

파생상품에는 선물(先物, futures)과 옵션(option)이 있습니다. 선물은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현재의 상품을 넘겨준다는 조건의 계약입니다. 현재 시세로 기초자산을 사고 팔고 결제까지 완료하는 것을 현물거래(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물거래(선물시장)는 기초자산을 장래의 일정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입니다. 옵션거래는 기초자산을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입니다. 다만, 살지 말지는 미래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물(先物, futures)거래가 무엇인가요? ☞

1. 개념

물건을 주고받기에 앞서 값을 먼저 매겨 계약을 하는 것이다. 나와 영수가 올해 딸기를 1개당 300원에 사고 팔기로 계약하고 돈은 미래시점에 지불하기로 했다면 선물거래다. 미래계약을 현재 시점에서 해버림으로써 미래에 있을 위험요소를 전부 없애는 것이다. 미래에 딸기가 헐값에 팔릴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미래에 딸기가 금값이 돼서 못 살까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2. 선물시장의 참여자

선물 시장의 참여자는 크게 헤지거래자, 투기거래자, 차익거래자로 나눈다.

헤지거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의 가격이 변동하면서 나타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물거래를 하는 사람 - 선물거래에 참여하여 원치 않는 위험을 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재 소유 중이거나 미래에 소유하게 될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위험을 회피하고자 미리 판매 ② 미래에 소유해야 할 자산의 가격상승위험을 회피하고자 미리 구매
투기거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과 관계없이 선물시장에 참여하는 사람 - 가격변동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시세차익을 얻음 - 시장의 유동성을 제공 - 시장정보 수집·분석·전달 및 헤지거래자의 위험을 인수
차익거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과 장소, 상품 간의 가격차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다 - 현물과 선물거래를 동시에 하는 투자자 - 빠른 컴퓨터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주로 기관투자자들이 차익거래자로서 활약한다

3. 생각해볼까요?

<헤지거래의 예: 나와 영수>

지금 갖고 있는 내 딸기가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서 헐값에 팔릴 위험을 피하려고 선물거래에 참여한다. 영수 또한 가계에 들여놓아야 할 딸기가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비싼 값에 딸기를 구입해야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물거래를 한다.



<투기거래의 예: 민재>

민재는 올해 딸기가 500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나에게 딸기를 300원에 선물거래하자고 한다. 그런데 진짜 올해 딸기 값이 개당 500원으로 시장에서 팔리게 되었다. 민재는 나와 선물거래를 하였으니 300원으로 딸기를 사갔다. 그리고 다시 시장에 나가 500원에 되팔았다. 민재가 얻은 시세차익은 200원이다.

<차익거래의 예: 희수>

현재 딸기 값이 300원 이고, 한 달 후에 지불하는 선물거래에서는 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희수는 딸기를 현재 가격대로 300원에 사고 동시에 선물거래를 통해 500원에 팔았다. 즉, 현재 300원에 샀던 딸기를 한 달 후에 500원에 팔 수 있으므로 중간에 딸기 값의 변화와 상관없이 200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4. 선물거래의 특징

딸기 값을 개당 300원으로 선물거래를 했을 때 올해 딸기 값이 올라서 500원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선물거래를 한 탓에 500원에 팔 수 있는 딸기를 300원에 팔게 되면서 다른 농장에 비해 수익이 적어진다. 딸기 값이 200원이 되었을 때는 이번에는 투자자가 손해를 입는다. 다른 농장에 가면 딸기를 200원에 살 수 있는데 300원에 딸기를 사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위험을 온전히 떠넘기게 된다.

옵션(option)거래가 무엇인가요?

1. 개념

옵션거래는 선물거래의 위험부담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다. 옵션거래는 현물, 선물이 아닌 '권리'를 거래한다. 미래에 서로 약속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다. 즉, 옵션거래를 할 때 옵션을 산 사람은 미래 일정시점에 이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를 선택한다. 선물거래가 미래에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데, 옵션거래는 계약을 이행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

2. 종류

콜옵션	살 수 있는 권리, 즉 매입선택권이다. 쉽게 말해 사고 싶으면 사고, 사기 싫으면 안 살 수 있다.
풋옵션	팔 수 있는 권리, 즉 매도선택권이다. 쉽게 말해 팔고 싶으면 팔고, 팔기 싫으면 안 팔 수 있다.

3. 생각해볼까요?

<콜옵션의 예>

영수가 딸기 값이 폭등할 때를 대비해 미리 나에게 딸기를 살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자고 한다.

'3개월 뒤에 너희 농장에서 딸기를 개당 300원에 100개 사고 싶어.

근데 그때 내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

대신 너한테 3천원을 미리 줄게. 3천원은 그냥 내가 가지는 거야.'

어차피 3개월 뒤에 딸기 값이 300원이 될지 100원이 될지 모르니 일단 3천원을 받는다. 3개월 뒤에 딸기 값이 500원이 된다면 영수는 나에게 딸기를 3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 딸기를 사갈 것이다. 그러나 100원이 된다면 영수는 굳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풋옵션의 예>

풋옵션에서는 콜옵션과 달리 영수와 나의 입장이 바뀌는 상황을 말한다.

'영수야, 3개월 뒤에 과일가게에 우리 농장 딸기를

개당 300원에 100개 팔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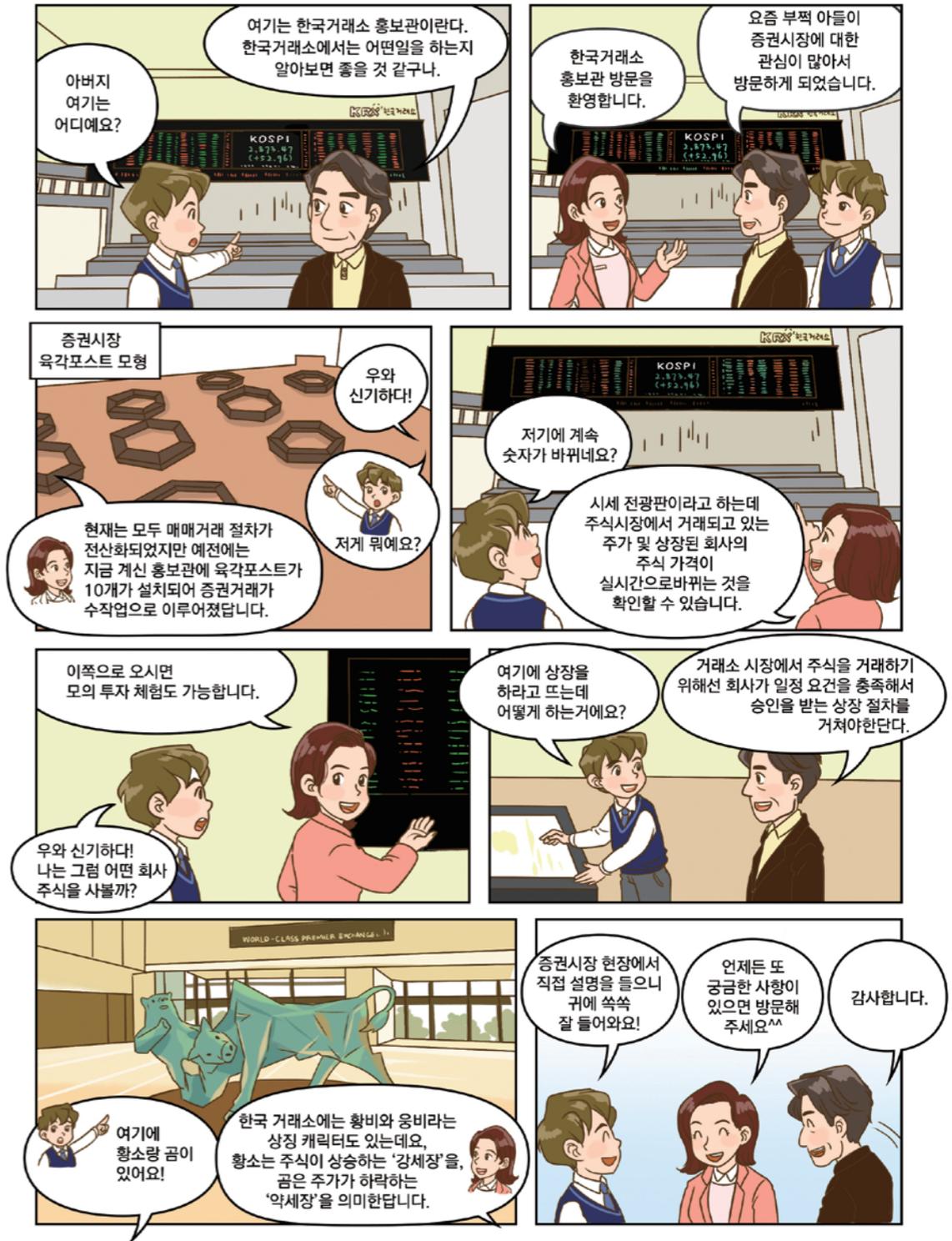
근데 3개월 뒤에 딸기 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안 팔 수도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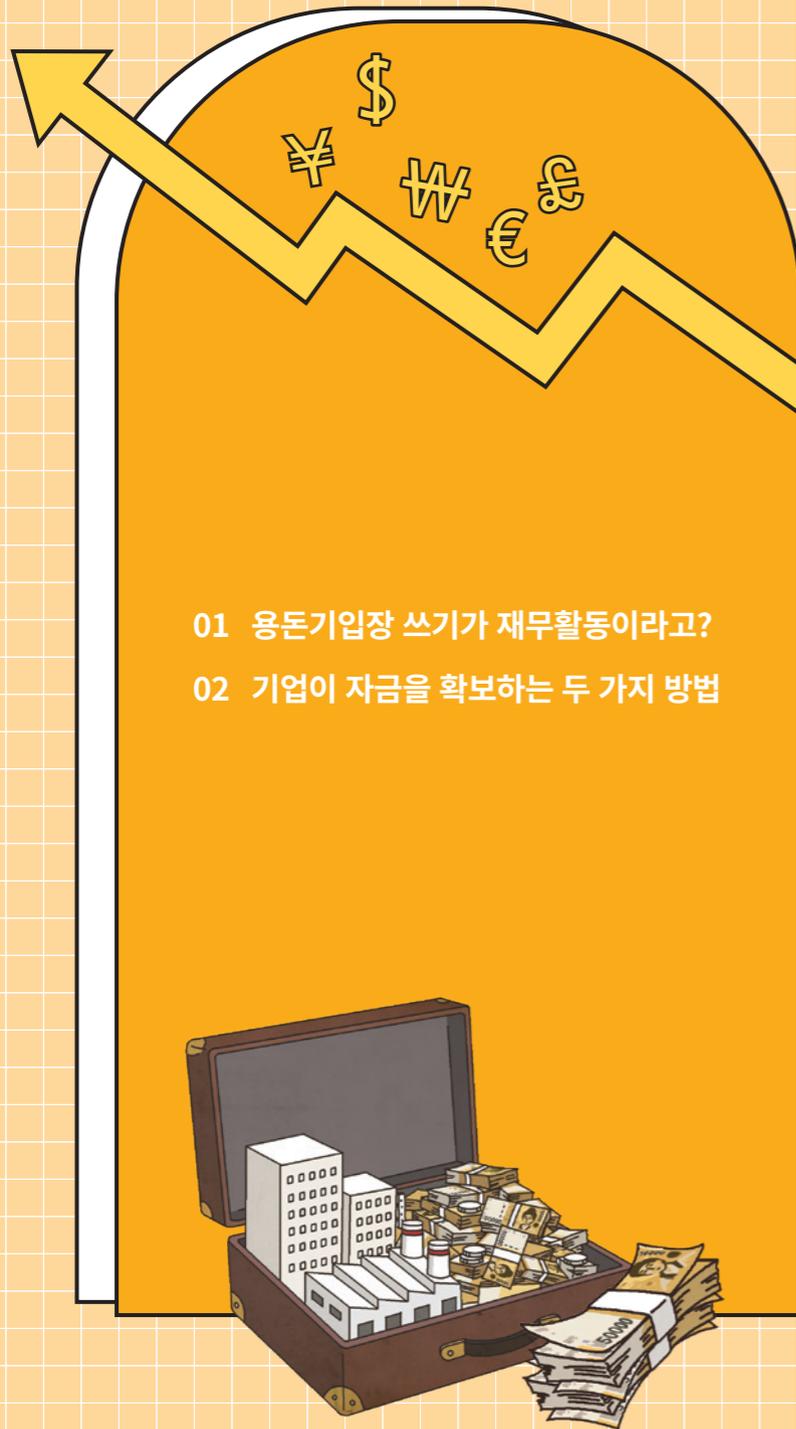
대신 너한테 3천원을 줄게. 3천원은 너 가져!'

3개월이 지났을 때 딸기 값이 100원이라면 나는 영수한테 300원에 팔면 된다. 내가 팔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딸기 값이 500원이라면 다른 과일가게에 팔면 된다.

4. 옵션거래의 특징

옵션매수자는 사거나 팔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대가로 옵션 매도자에게 옵션가격(프리미엄)을 지급한다.





- 01 용돈기입장 쓰기가 재무활동이라고?
- 02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는 두 가지 방법



4

증권시장, 기업이 버티는 힘

01

용돈기입장 쓰기가 재무활동이라고?

여러분은 용돈을 받으면 어디에 제일 먼저 쓰고 싶나요?

친구들과 놀러 다니며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값진 것을 사기 위해 더 많이 저축하는 경우도 있고, 벌써 재테크 등에 관심을 보이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얼마나 용돈을 소비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들어온 돈 즉, 수입이 얼마이고 또한 나가는 돈 즉, 지출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효율적으로 금전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받으면 용돈기입장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어른들이 가계부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용돈기입장의 예>

용돈기입장				
날짜	내용	지출	수입	잔고
2018-11-05	용돈		50,000원	50,000원
2018-11-08	준비물	3,000원		47,000원
2018-11-11	빼빼로 선물	10,000원		37,000원
2018-11-26	저축	30,000원		7,000원
합계		43,000원	50,000원	7,000원



기업 역시 똑같습니다.

자본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기입하면 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주체입니다. 재무, 인적자원관리, 생산, 마케팅, 회계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 중에서 금융시장 및 증권시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활동을 '재무활동'이라고 합니다.

우와! 파이 회사 덕분에 6개월 동안 600만 원을 벌었구나! 파이회사자산이 얼마인지 확인해볼까?

일단 영수와 민재한테 돈을 빌렸으니까 적어놓아야겠지? 영수는 20만원, 민재는 20만원. 그런데 영수는 채권자이고 민재는 투자자니까 다르게 표시를 해야겠다. 은행에서도 100만 원을 빌렸는데, 이것도 빚인가 그림?

영수 20만원
민재 20만원
투자

6개월 전에 공장부지 살 때 10만원, 공장 지을 때 30만원 들었지? 공장에 들여놓은 기계값이 얼마더라? 50만원이었던 거 같다. 파이 재료비도 20만원 적어놓고.

내 돈 60만원에 은행차입금 100만원, 영수 채권 발행 20만원, 민재 주식 발행 20만원, 모두 합쳐서 투자금이 200만원이니 400만 원을 벌었구나.

<투자금 200만원>
내 돈 60 + 은행차입금 100 + 영수채권 20 + 민재주식발행 20 = 200

은행이랑 영수에게는 돈을 갚고, 민재에게는 배당이익 25%를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너무 복잡하다.

이럴 때 알아보기 쉽게 쓰는 방법이 없을까?

‘재무활동’에 대해 더욱 알아보겠습니다.

용돈기입장을 쓸 때 들어오는 돈인 수입과 나가는 돈인 지출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같은 원리로 수입과 지출을 작성하지만, 용돈기입장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기업이 자금을 공급 받는 방법은 2장에서 배웠습니다. 회사는 주식이나 채권의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출에는 무엇이 해당될까요? 조달된 자본을 토지, 건물, 기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당장 구입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구입하기 위해서 현금 등의 형태로 보유할 수도 있고, 기업 활동을 위해 빌렸던 돈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의 배당금 지급 및 회사의 이윤을 재투자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회사의 성적표, 재무제표

이러한 모든 활동은 결국 기업의 경영활동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수치화하여 인식, 기록, 분류, 정리 하면 ‘재무제표’라는 회계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이 회계보고서는 기업 가치를 외부에 공표하고 알리는 데에 사용됩니다. 기업의 일정기간 동안의 재무활동과 생산·판매활동 등이 여기에 기록됩니다. 결국 그 회사의 재산 상태와 경영성과라는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면 시험을 치르죠? 그리고 성적표의 수치로 그동안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죠. 회사에 있어서 재무제표는 학생들의 성적표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회사의 경영활동이 수치화 되어 기록되면 이를 보고 투자자들이 더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잘 작성된 재무제표는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고 재무제표는 모든 회계의 기본이 됩니다.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알려주는 재무상태표

회사는 일정한 시점이 오면 재무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대략 한 해가 끝나는 연도 말, 한 해를 6개월 단위로 나눈 반기 말, 한 해를 3개월 단위로 나눈 분기 말에 작성합니다. 그간의 회사 운영실적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기업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얼마씩 있는지 상태를 적어주는 것이죠. 이 내용을 한 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한 것을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재산이 얼마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므로 중요한 자료입니다.

기업의 자산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자본은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를 하기 위해 자기 자금 즉 주주들의 자금을 끌어온 것을 말합니다. 타인자본은 남에게 빌린 것을 말합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 것도 타인자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타인자본은 갚아야 할 돈이니 부채라 부릅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일정한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서식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조달된 자금인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기록합니다. 왼쪽에는 조달된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기록합니다. 오른쪽을 대변(貸邊), 왼쪽을 차변(借邊)이라고 합니다. 파이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그림 상으로 보여주자면, 아래와 같은 도표가 나옵니다.

재무상태표			
과목	금액(억원)	과목	금액(억원)
자산		부채	
유동자산	200	유동부채	120
당좌자산	165	고정부채	30
재고자산	35	부채총계	150
고정자산	400	자본	
투자자산	150	자본금	5
유형자산	230	자본잉여금	55
무형자산	20	이익잉여금	385
		자본조정	5
		자본총계	450
자산총계	600	부채와 자본 총계	600

자산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통상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거나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자산은 당좌자산이라고 하고 상품, 제품처럼 현 재고를 파악할 수 있는 자산이 재고자산입니다. 고정자산은 그 반대입니다. 유동자산과 다르게 판매할 목적이 아닌 자산입니다. 1년 이상 기업에서 고정적으로 사용되고 변함이 없는 자산입니다. 영업 목적이 없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투자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업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고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토지나 건물, 기계장치, 비품 등은 유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은 그와 반대로 실체는 없지만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권, 상표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동부채는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를 말합니다. 고정부채는 그 반대입니다. 상환 기간이 1년 이상 장기이거나 상환할 필요가 없는 부채를 말합니다.

따라서 유동부채보다 고정부채가 많을수록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 잉여금, 자본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기업의 소유자가 기업에 제공한 돈입니다. 즉, 흔히 말하는 사업 밑천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회사가 처음 설립할 때 발행한 주식을 통해 조달된 자본도 포함됩니다. 잉여금은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잉여금 중에서도 자본잉여금은 주식의 납입, 환급, 수정 등을 통해서 생기는 금액이고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번 돈을 의미합니다. 자본조정은 자본금이나 잉여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항목을 임시로 모은 것을 말합니다.

부채와 자본을 합한 금액은 총자산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 자산(자본총계)이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재무상태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회사의 성장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경영 성과를 알고 싶다면 손익계산서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재산을 이용하여 일정기간에 얼마만큼의 경영성과를 거두었는지 나타냅니다. 당해 기간에 실현된 모든 수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익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도 들어있습니다. 용돈기입장에서 수입 지출을 합하면 현재 남은 용돈이 나오듯이, 회사의 순이익 규모를 나타내는 표가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익은 매출액, 영업외수익, 특별이익으로 구분됩니다. 비용은 매출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비용, 특별손실로 구분됩니다. 손익계산서는 회사의 경영 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따라서 그 회계 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 및 총 포괄손익을 적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세부 항목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수익

매출액은 제품의 판매로부터 발생한 총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서비스 업종이나 인력을 제공하는 업종이라면 서비스나 인력에 의해 얻어진 금액 또한 매출액에 포함됩니다. 영업외수익은 매출액 이외의 수익입니다. 임대료 등 본래 영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부대수익입니다. 특별이익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특별하게 발생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비용

매출원가는 판매 상품을 만들기까지 들어간 원가를 말합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이 됩니다. 판매비는 판매활동으로 발생한 비용이고 일반관리비는 건물임차료, 감가상각비처럼 기업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에 드는 비용입니다.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영업외비용은 매출원가, 판매비, 일반관리비 이외의 비용입니다.

손익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을 손익이라고 합니다. 영업외수익에서 영업외비용을 빼면 영업외적으로 얻은 손익, 영업외손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이익에서 특별손실을 제하면 특별 손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사업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손익을 뺀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손익과 법인세를 제하면 당기순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기간에 얻은 순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나타내는 수치라고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과목	금액(억원)
매출액	107
매출원가	69
기초상품(또는제품) 재고액	15
당기매입액	43
기말상품(또는 제품) 재고액	11
매출총이익(또는 매출총손실)	52
판매비와 관리비	30
급여	28
복리후생비	2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	24
영업외수익	2
이자수익	1
배당금수익	1
영업외비용	2
이자비용	2
계속사업이익	18
특별이익	4
특별손실	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5
당기순이익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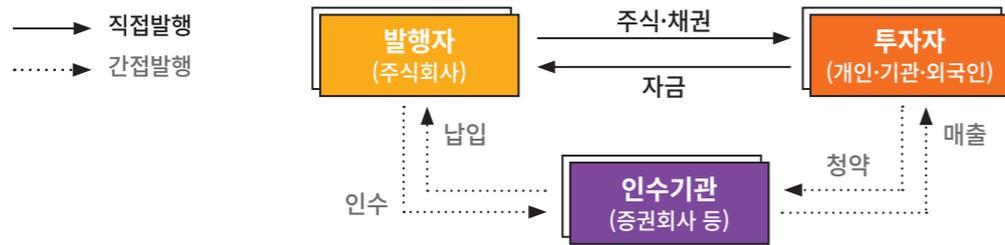
02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는 두 가지 방법

앞서 우리는 기업이 자금을 공급받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웠습니다. 간접금융시장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투자를 받기도 합니다. 또는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1장에서는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개념을, 2장에서는 주식과 채권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4장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발행되는 과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곳이 발행시장입니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주식이나 채권발행은 발행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발행시장에는 발행자, 인수기관 그리고 투자자들이 참여합니다. 발행자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의 공급자인 셈입니다. 또한 자금수요의 주체자이기도 합니다. 인수기관은 발행 대행기관입니다. 자금의 수요자인 발행주체가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 받도록 도와줍니다. 주로 증권회사가 이러한 역할을 도맡아서 합니다.



투자자는 발행주체가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을 삽니다. 자금을 공급하고 회사로부터 주식이나 채권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소액의 자본을 가진 개인투자자도 있고 거액의 자본을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도 있을 만큼 투자자는 다양합니다. 투자자는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관투자자는 소액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관리·운영해주시기도 합니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각종 연·기금 단체 등이 있습니다.

㉠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직접 금융을 통해 채권을 발행하면 정해진 기간마다 이자를 꼬박 꼬박 내야 합니다. 그 뿐인가요? 만기가 되면 원금도 갚아야 하니 금전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직접 금융 중에서도 주식을 발행한다면? 이자와 원금 지급 의무로부터 해방 될 수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돈줄이 생명이라는 기업에서 돈을 쉽게 빌리고 그 금액만큼 갚지 않아도 된다니 사업 확장이나 회사 설립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편리할 것입니다. 주식은 이러한 이유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발행의 장점을 정리하면,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할 경우 이자비용 등과 같이 정기적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은 만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발행하여 설립된 주식회사가 소멸할 때까지 영구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발행은 자기자본을 증가시킵니다. 즉 타인자본,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시장이 좋은 경우 거액의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발행의 단점도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과 회사의 이익에 대해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이익배당청구권을 가집니다.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회사를 경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긴 이익에 대해서도 주주와 나누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채권 발행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주식회사도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채권은 채권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법인세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주식 발행으로 주주들의 간섭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장기적인 사업도 마음껏 경영할 수 있습니다.

채권 발행의 단점도 있습니다.

채권은 일종의 차용증서라고 볼 수 있는데, 채권을 구입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나중에 이자와 함께 회사를 믿고 채권을 산 사람들에게 원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채에 대한 원리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부채가 너무 증가하면 회사의 재무상황이 안 좋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지 않기 때문에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도 어려워집니다.

신용등급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는 보통 두 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등급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신용등급은 투자자에게 원리금의 회수가가능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발행자의 사업성, 수익성, 현금흐름, 재무 안정성 등을 기초로 합니다. 때문에 신용등급은 회사채 발행 후 시장에서 거래될 때에도 투자 판단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BBB- 이상)을 투자적격등급채권이라고 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BB+ 이하)을 투기등급채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신용평가기관에는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등이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무디스(Moody's)사와 스탠다드푸어스(S&P)사 등이 있습니다.

기업공개와 증자

기업공개

1. 기업공개란? 주식회사가 설립 이후에 일반 대중에게 최초로 그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을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라고 한다. 기업공개 방법에는 기존 주주의 소유주식을 매출하는 방법과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여 모집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 주주 소유 주식 매출	자본금의 증가 없이 주주만 교체
주식 신규 발행 모집	자본금 증가와 함께 거액의 자금 조달 가능

2. 기업공개 효과: 첫째,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둘째, 주식의 소유가 완전히 분산되어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문경영인에 의해 합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 셋째, 기업정보가 공개되어 사회의 감시기능이 강화되므로 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넷째, 투자자 계층이 확대되며 증권시장에 주식을 공급하여 투자 수단이 넓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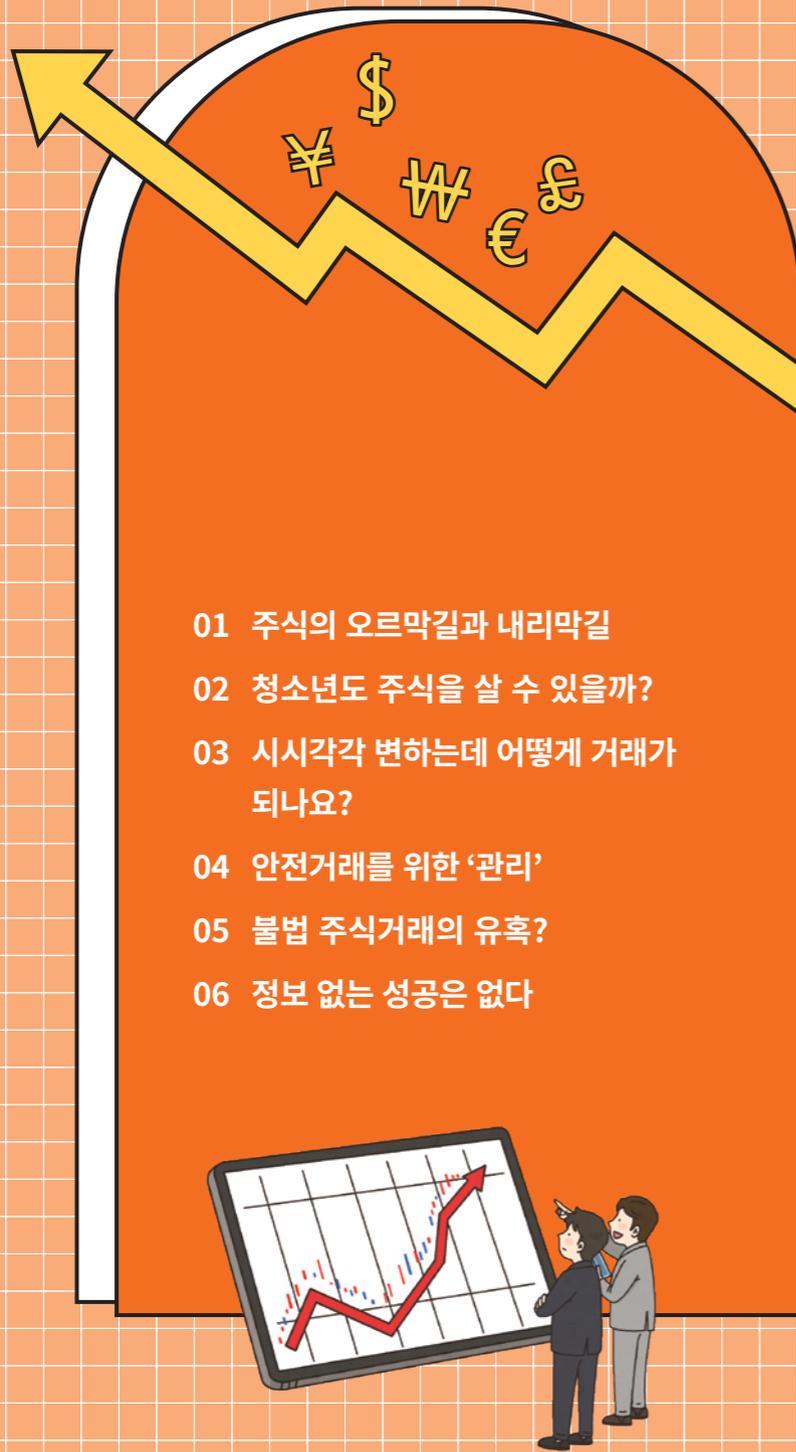
증자

1. 증자란?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통칭해서 증자라고 합니다.

2.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유상증자	무상증자
신주를 발행하여 회사의 (납입)자본금을 증가하는 것.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인수가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시켜 신주자금 또는 재산이 늘어난다. 즉 발행주식수와 함께 회사 자산도 늘어난다.	기존의 주주에게 그들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로 새로운 주식을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 실제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재무제표상 항목 간 변동을 통하여 자본금이 명목상 늘어난다.





- 01 주식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 02 청소년도 주식을 살 수 있을까?
- 03 시시각각 변하는데 어떻게 거래가 되나요?
- 04 안전거래를 위한 ‘관리’
- 05 불법 주식거래의 유혹?
- 06 정보 없는 성공은 없다



Chapter
5
**일확천금
주식투자,
사실일까?**



일확천금 주식투자, 사실일까?



주식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여러분은 주식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주식투자를 해서 큰 이익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또는 큰 손해를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가가 올랐다면 기뻐하고 때로는 주가가 떨어졌다면서 슬퍼하는 어른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을 텐데요. 심지어는 주식 때문에 나라 전체가 들쭉이는 내용이 뉴스에 나오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한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주식은 어른들이나 하는 골치 아픈 숫자싸움인 것일까요? 아니면 돈을 몽땅 잃어버리게 하는 무시무시한 도박일까요? 만약 주식에 대해 이러한 오해를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주식에 대해 정확하게 배울 때가 되었습니다. 주식은 어렵지만 한 일도, 도박도 아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입니다.

주가는 어떻게 오르내리는 것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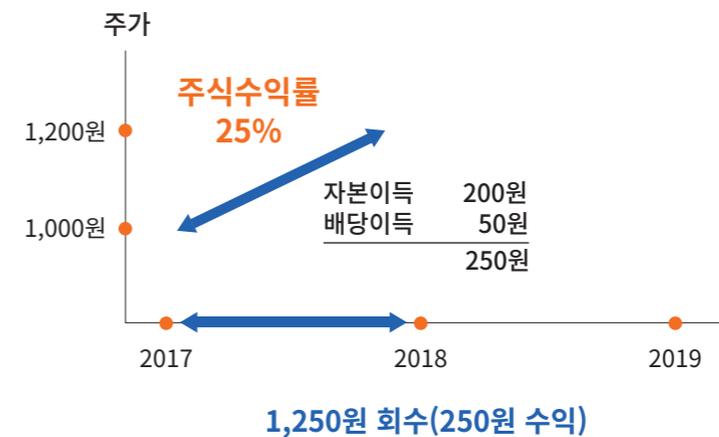
주가는 주식의 가격을 말합니다. 주식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사고 팔 수 있다니 참 신기한 일입니다. 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의 가격은 어제와 오늘도 동일합니다. 만약 가격이 오른다면 100원이나 200원 정도 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000원이었던 아이스크림이 오늘 갑자기 1,500원으로 올랐다가, 다시 다음 날 800원으로 떨어지



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식은 그렇습니다. 똑같이 시장에서 거래되는데 주식은 오르내리는 일이 아이스크림보다도 빈번하고 그 변화의 폭도 큼니다.

배당이득과 자본이득

앞서서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을 받고 이득을 얻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수익을 얻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본이득'입니다. 자본이득이란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말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듯이 주식을 1,000원에 사보겠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1,200원에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배당을 한번 받게 될 텐데, 그 배당금액이 5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1년 전에 산 1,000원짜리 주식 덕분에 1년 뒤에 250원을 번 셈입니다. 여기서 200원이 자본이득, 50원이 배당이득입니다. 1,000원을 투자해서 250원을 벌었으니 25%의 수익을 낸 셈입니다. 이것을 주식수익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식수익률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확정된 것도 없기 때문에 도리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가는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주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수요가 많으니 자연스럽게 주가가 오르고 배당이득도 오르게 되며 주식수익률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 반대가 되겠죠. 심지어 투자 원금도 회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것은 ‘위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가에 영향을 끼쳐 배당과 자본이득을 오르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위험요인’입니다. 이것은 기업 외부에 있을 수도 있고 내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위험: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불경기가 장기화 된다면?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재화도 잘 팔리지 않을 것이고 주식시장에도 투자자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수요가 적으니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처럼 경기, 국민소득, 통화량, 물가, 금리, 환율과 같은 기업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 외적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변하는 것은 한 기업이 고군분투한다고 해서 막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한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로의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 또는 시장위험(market risk)이라고 합니다.

개별 위험: 틱스타 A씨를 파이회사 광고모델로 고용합니다.

인지도가 높은 A씨의 영향으로 어떤 맛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너도나도 파이를 사먹겠죠? 아마도 파이가 더욱 잘 팔리게 될 것입니다. 파이가격이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주식의 가격까지 오르게 될 것입니다. 주가가 오른 이유는 A씨 이미지에 힘입어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기업의 경영능력, 시장점유율, 재무구조, 경영자, 연구개발능력 등과 같은 기업 내적 요인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예인 A씨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면 파이회사 이미지 역시 나빠지겠지요? 이처럼 전체적인 경기동향과는 관계없이 기업에 개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unsystematic risk) 또는 개별위험(firm specific risk)이라고 합니다. 체계적 위험과 달리 특정 기업



의 위험은 다른 기업의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주식에 분산투자하면 이러한 비체계적 위험은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위험’을 파악해야 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우리의 의지로 대처가 충분히 가능한 위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위험이 있습니다. 개별 위험은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해당 기업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가능성이 있는 기업 몇 곳을 골라 분산투자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분산투자를 하여도 제거하거나 축소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위험입니다.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산투자를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장 위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험 (Risk)		
위험의 종류	체계적 위험 (시장 위험)	비체계적 위험 (개별 위험)
요인	기업 외적 요인 : 경기, 국민소득, 통화량, 물가, 금리, 환율 등	기업 내적 요인 : 이미지, 경영능력, 시장 점유율, 재무구조, 경영자, 연구 개발능력, 파업, 법적 소송 등
영향력	다른 기업 주가에도 영향	다른 기업의 주가와 개별적
분산투자 결과	영향권 안에서는 회피 불가	어느 정도 회피 가능

경기와 주가

경기에는 불황기, 회복기, 호황기, 쇠퇴기가 있습니다. 불황기에는 투자자도 기업도 위축됩니다.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상태입니다. 회복기는 정부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통화량도 늘리고 투자도 유도하며 서서히 소비가 확대되는 시기입니다. 호황기는 소비의 최고조 시기입니다. 경기가 회복되어 자금이 빠르게 유통됩니다. 쇠퇴기는 소비가 다시 줄어 기업의 수익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주가는 항상 미래의 경기에 대한 예상을 반영하고 먼저 움직입니다. 호황기에는 경기가 최고조에 달하기 전에 주가는 이미 하락세로 접어들어갑니다. 반대로 경기가 불황이라면? 회복기로 변하기 전에 주가는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물가와 주가

물가는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deflation), 경기 불황이지만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경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일 때는 주식보다 안전한 채권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어 주가는 떨어집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서는 투자자들이 실질 소득이 줄어 구매력이 떨어지므로 주가도 떨어집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 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자산을 찾게 되어 주가가 다시 떨어집니다.

국민소득과 주가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면? 소비는 당연히 늘어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투자가 늘고 기업이익이 증가합니다. 기업이 성장하니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시장에 투자자금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주가 또한 상승합니다. 국민소득이 떨어진다면? 결과는 그와 반대가 됩니다.

통화량과 주가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각 가계에 여유자금이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가계는 여유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대체적으로 주가가 오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화량이 너무 많아지면 화폐가치가 떨어집니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주식보다는 실물 자산을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와 주가

금리는 주가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내야 할 이자가 줄어드니 재무상태가 좋아지고 그만큼 적극적으로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투자가 경영성과로까지 이어진다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은행의 예금 금리가 낮으니 굳이 은행에 돈을 예금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더 투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보다는 은행을 찾게 되니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환율과 주가

1달러가 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1달러를 얻는데 1,000원 이상을 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1,000원 미만의 돈을 내야한다는 뜻이겠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1달러를 가진 외국인이 우리나라 물건을 살 때 환율이 오르면 1,000원 이상의 물건을 사고 환율이 떨어지면 1,000원 미만의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기업은 좋습니다. 외국에 우리나라 제품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성장하기 유리하므로 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동일해도 환율이 상승한다면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주가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주가 오르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불황에서 회복세로 들어서기 직전, 완만한 인플레이션 곡선을 그릴 때,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통화량이 적정히 증가할 때, 금리가 낮을 때, 환율이 오를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상황은 시장 위험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분산투자를 한다고 해서, 위험에서 바로 벗어나거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장 위험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기투자'입니다.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업외적 요인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변하는 금융 현상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폭락하여도 폭락한 주식을 매입하여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도리어 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종목 개별위험은 '분산투자'로, 통제불가능한 시장위험은 '장기투자'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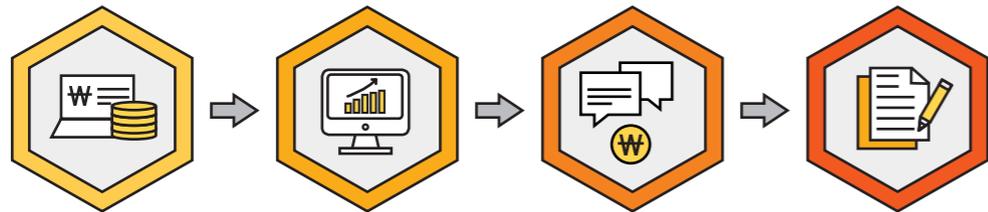
02

청소년도 주식을 살 수 있을까?

‘어린이 주식부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많은 수는 아니지만 뉴스나 책에서 심심치 않게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억 단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만나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보면 어린이들도 얼마든지 주식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이 아이들의 경제관념을 어려서부터 길러주기 위해 주식시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주식을 생활 속에서 접하면 내가 투자한 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금융경제 시장을 공부하며 성장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모은 돈은 나중에 대학 등록금이 되거나 배낭여행비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니 일석이조입니다. 그럼 우리도 함께 주식투자에 참여해볼까요?

매매거래의 절차

주식투자를 결정했다면 우선 어떤 증권회사가 좋을지 고민해보고 부모님과 함께 증권회사를 방문합니다. 증권거래의 절차는 대체적으로 아래처럼 진행됩니다.



증권회사	한국거래소	증권회사	명의개서 대행기관
1. 매매거래 계좌 개설 2. 매매주문	3. 주문접수 4. 매매 체결 5. 매매결과 보고	6. 매매결과 통보 7. 결제	8. 명의개서

㉠ 증권계좌 개설

은행에 저축을 하려면 내 이름으로 된 계좌를 만듭니다. 증권 역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서 증권계좌를 만듭니다. 증권계좌를 개설하면 통장과 증권카드가 발급됩니다. 요즘에는 종이로 된



통장과 플라스틱 카드가 없어도 증권회사와 계약한 은행에 가상 계좌가 신설되어 스마트폰 어플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매주문 및 체결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해봅시다. 그러면 직원이 보통은 묻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맞으세요?”라던지 “따뜻한 것으로 드릴까요, 아이스로 드릴까요?” 등의 확인을 받습니다. 결제를 할 때도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할인은 받는지, 현금인지 카드인지, 현금 영수증은 발행하는지, 포인트 적립은 하는지 등 조건을 모두 확인하고 나서야 결제를 하고 음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종목을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계좌에 매수대금을 입금한 후 사고자 하는 주식의 종목, 수량, 가격을 기입한 주문을 증권회사에 제출합니다. 이 주문은 증권회사에서 한국거래소로 넘어갑니다. 주문은 가격을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누어지지만 매수, 매도하고자 하는 가격을 미리 지정하는 지정가주문이 일반적입니다.

㉢ 매매결제

매매거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제 ‘매도주식’과 ‘매수대금’을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이를 매매결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휴장일을 제하고 삼 일째 되는 날에 매매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매수대금은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매도주식은 실제로 거래당사자에게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됩니다.

㉔ 명의개서

주식을 매수하면 발행회사로부터 주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 발행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소, 이름 등을 기입합니다. 이를 명의개서라고 합니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되지 못합니다. 보통 이러한 업무는 명의개서대리인이 대신 처리해주는데요,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이러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주식 매매 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1. 매매거래일

매매거래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토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12월 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직전 매매거래일),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매매거래 및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2. 매매시간

정규시장의 매매시간은 09:00~15:30이며, 시간외시장은 08:00~09:00과 15:40~18:00이다.

3. 호가와 호가가격단위

호가는 주식의 매수자(매도자)가 주식을 사고자(팔고자) 주문을 할 때 부르는 가격을 말한다. 호가가격단위는 주문을 낼 수 있는 최소 가격단위이다. 호가가격단위에 맞지 않게 주문을 내면 주문 처리가 되지 않으며 시장별로 차이가 있다.

4. 매매수량단위

매매수량단위는 주문을 낼 수 있는 최소 수량단위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및 코넥스 시장 모두 1주로 정해져 있다

5. 위탁증거금

거래에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계약금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의 위탁증거금은 각 증권회사별로 자율화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증권회사는 개인투자자에게 약 40%를 징수하고 있다.

6. 위탁수수료

증권회사는 매매거래가 성립되면 투자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징수한다. 매매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고,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HTS(Home Trading System), MTS(Mobile Trading System)를 통해 매매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적다.



시시각각 변하는데 어떻게 거래가 되나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깁니다. 주가는 수시로 변하는데 어떻게 거래가 되는 걸까요?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면 매매를 하는 중간에도 가격이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거래가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게다가 경쟁 매매 과정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한 푼이라도 더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요즘에 실제 한 장소에 모여서 매매를 하는 모습은 드물지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전자시세판을 보며 보이지 않는 눈치 싸움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주식 경쟁 매매에서 과연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요?

현재 증권시장에서는 “개별경쟁매매방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매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참여합니다. 매도자는 파는 사람이고 매수자는 사는 사람입니다. 이때 사고파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각기 희망하는 가격을 제시하고 조건이 맞는 사람끼리 거래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개별경쟁매매입니다. 꼭 청과물 경매시장 분위기를 연상하게 하죠?

증권 매매의 다양한 방법

1. 개별경쟁매매가 있다면 집단경쟁매매도 있다.

다수의 매도측과 매수측이 경합하여 일정 가격에서 전 수량이 합치하면 그 가격을 약정 가격으로 하는 것을 집단경쟁매매라고 한다.

2. 경쟁이 아닌 매매도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1대1인 경우를 상대매매, 한 명의 매도자 혹은 매수자가 여러 명을 상대하는 경우를 입찰매매라고 한다.

단일가매매과 접속매매

거래를 하다가 중간에 가격이 바뀌는 상황이 와서는 거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증권시장에서는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두 가지 방식으로 매매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단일가매매입니다. 아침 8시 30분에 주식 주문 접수가 시작되고 9시에 주식 시장이 열립니다. 주식 주문이 몰려듭니다. 그러

면 그때마다 하나하나 계약을 체결해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일정시간동안 주문을 모아 호가를 일정 시점에 하나의 가격으로 묶어서 체결합니다. 이러한 단일가매매는 매도·매수 수급에 의한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찾기 위한 매매체결 방법입니다. 단일가매매 시간이 지나면 접속매매가 시작됩니다. 단일가가 아닌 여러가격으로 거래가 되는데, 가격이 맞는 호가를 시간 순서대로 체결하게 됩니다. 조건이 일치하는 대로 선행 호가의 가격으로 거래를 계속 성사시킵니다.

개별경쟁매매의 매매체결 원칙

이렇게 복잡한 매매 가운데서도 신속하고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를 하려면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거래소는 두 가지 매매우선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1. 가격우선의 원칙, 2. 시간우선의 원칙입니다. 가격우선의 원칙이 먼저 적용되고 동일한 가격 간에는 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라 주문 간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가격 우선의 원칙 : 저가의 매도 호가는 고가의 매도 호가에 우선하고, 고가의 매수 호가는 저가의 매수 호가에 우선한다.

시간 우선의 원칙 : 동일한 가격의 호가에 대해서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 가격우선의 원칙

가격우선의 원칙은 증권시장의 경쟁매매에 있어서 호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원칙 중 최우선적인 원칙입니다. 여러 가지의 매매호가 가운데 가장 불리한 가격 조건을 가진 주문이 우선이라는 내용입니다. 주식을 파는 입장, 매도자의 경우 저가일수록 불리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매도호가는 저가일수록 우선합니다. 주식을 사려는 입장, 매수자의 경우는 고가를 부를수록 불리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매수호가는 고가일수록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에 매도 주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수주문이 10,000원과 12,000원이 동시에 나왔다면? 이 주식은 매도 호가 10,000원과 매수 호가 12,000원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 시간 우선의 원칙

개별경쟁매매를 하다보면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주문 가운데 호가가 동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격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호가를 누가 먼저 접수하였느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매겨집니다. 즉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보다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먼저 '찍'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뜻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원활한 수급의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일정한 매매 계약 체결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경쟁매매 제도는 시장 경제 원리에 적합하지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경쟁매매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소에서는 위의 두 가지의 원칙에 준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안전거래를 위한 '관리'

앞서 보았듯이 한국거래소는 증권을 매매하는 유통시장이기도 하지만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역할도 합니다. 매매가 원활하지 않으면 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의 원칙을 세우는 것 외에도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관리 또한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시장을 위해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가격제한폭

여러분은 상한가, 하한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 중 상승할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을 상한가라고 하며, 반대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의 가격을 하한가라고 합니다. 아무리 하루 종일 가격이 변하는 주식이지만, 밀도 끝도 없이 가격이 떨어지거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산 주식의 가격이 땅으로 푹 꺼진다면 어떨까요? 계속 100원, 200원으로 예시를 들어왔으니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전부 주식에 투자했다면요? 회사가 성장할 줄 알고 돈을 투자했는데 폭락하여 내가 회수할 투자 원금이 한 푼도 없다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 그 상실감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주가가 치솟으면 마냥 좋을까요? 아닙니다. 상승하는 주식에는 수많은 투자자가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가 아닌 투기가 되어버리고 투기 대상 이외의 상장회사는 오히려 투자를 받

기 어려워지겠죠. 이렇게 되면 올바른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이 현상이 지속되면 아예 주식시장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버블경제라고 합니다.

결국 주가가격의 급등락은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치고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중에 변동할 수 있는 가격의 폭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가격제한폭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제한폭은 전날 주식이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격(증가)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현재 일일 가격제한폭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전일증가 대비 상하 30%로 설정되어 있으며, 코넥스시장은 전일증가 대비 상하 1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㉞ 매매거래중단(CB; circuit breakers)



1987년, 미국 증권시장의 주가 대폭락 사태인 블랙먼데이(Black Monday)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0월 19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대량의 매도 주문이 쏟아지면서 그날 하루 22.6%가 폭락했습니다. 대기업은 주가가 5% 정도 떨어지면 경제 전문가들이 등장해 원인을 분석하고 심지어 뉴스에 보도될 정도입니다. 그러니 22.6%는 그야말로 ‘대폭락’이라고 하겠죠. 이 극도로 우울했던 월요일에 일어난 현상을 블랙먼데이(Black Monday)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심리 상 거래를 못하는 주말 동안에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장이 시작되는 월요일이 되자마자 팔아버리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약간 주가가 내려가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1987년 블랙먼데이처럼 매도주문만 쏟아져 주가가 뚝 떨어진다면 주식시장은 대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중단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증권시장의 내·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입니다.

매매거래중단은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1,2단계에서 유가증권시장은 코스피지수가, 코스닥시장은 코스닥지수가 각각 전일대비 8%, 15%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면 20분간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3단계에서는 지수가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면 당일 매매거래를 종료합니다.

매매거래중단은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1,2단계에서 유가증권시장은 코스피지수가, 코스닥시장은 코스닥지수가 각각 전일대비 8%, 15%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면 20분간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3단계에서는 지수가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면 당일 매매거래를 종료합니다.

㉟ 매매거래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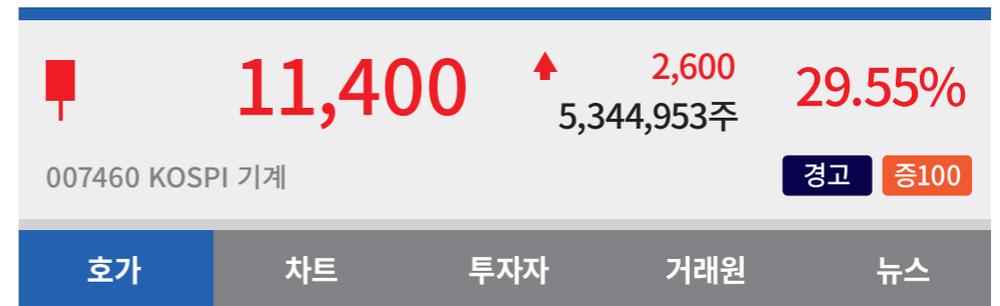
매매거래정지제도는 특정종목에 대해 시장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매매를 정지하는 것입니다. 중단과는 다른 말이니 헛갈리지 마세요! 매매거래중단이 시장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매매거래정지는 상장 기업의 위기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어음 또는 수표를 부도냈다면? 아니면 은행에서 A 회사와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했다면? 이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소식이 될 것입니다.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회사에 투자하는 바보는 없을 테니까요. 소식이 들리는 순간부터 투자자들은 발을 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어음 부도 소식이 잘못된 소문이었다거나 경쟁 기업이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면 어찌지요? 멀쩡한 기업에서 투자자들이 한순간에 빠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거래정지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영업활동이 정지되는 일처럼 상장회사의 존폐와 관련된 소문으로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종목이 있다면, 투자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합니다. 그리고 정지사유에 대해 해당 기업이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실 여부를 공개(공시)하면 그 시점부터 30분 후에 매매거래를 재개합니다. 매매거래정지 동안 투자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기업은 문제에 대해 해명할 시간을 버는 것이지요. 그 이후 투자를 계속할 것인지 발을 뺄 것인지는 투자자의 몫입니다.

㉠ 투자경고(위험)종목

특정 종목의 주가가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면 투자자는 해당 종목 투자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투기적, 불공정거래가 일어나고 있는지 시장을 감시하고 이러한 소식이 있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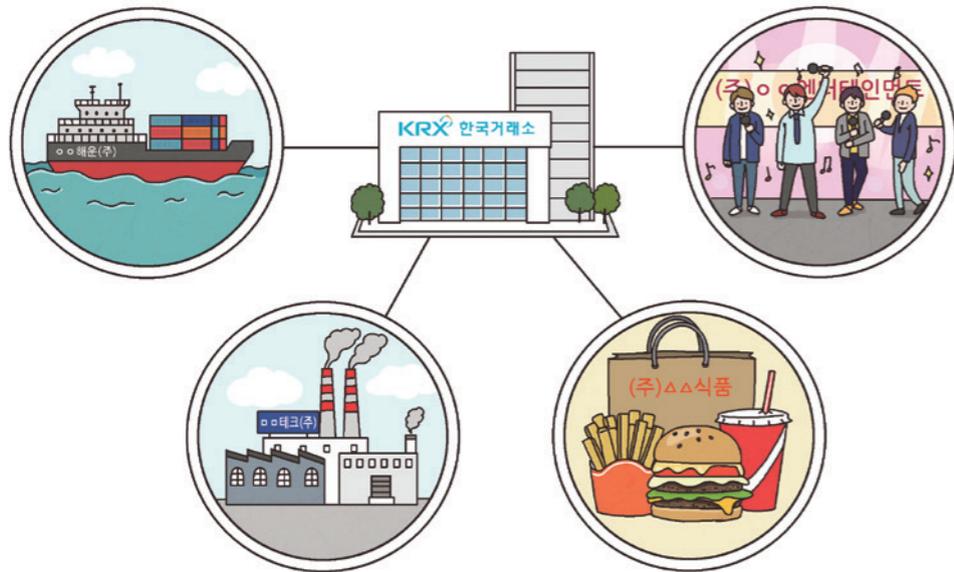


사실 투자경고종목으로 분류가 된다고 해서 해당 종목에 대해 거래가 정지되거나 모든 투자자의 투자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목명 옆에 경고라고 표시가 되고, 투자자들은 해당 주식의 최근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을 인지하여 조심스럽게 보게 됩니다.

㉔ 관리종목

관리종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리가 필요한 종목을 말합니다. 왜 관리가 필요할까요? 기업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이 극도로 악화되어 상장폐지가 될지도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모르고 투자를 하면 투자자는 예견된 손실만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 관리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해당 종목이 거래소에서 특별히 관리를 할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종목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공정한 가격의 형성, 원활한 유통 및 투자자 보호에 합당한 종목으로 한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동성이 없거나,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거나, 영업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된다면 상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은 따로 표시하여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종목이라고 투자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에게는 주의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에 일정 기간을 부여하여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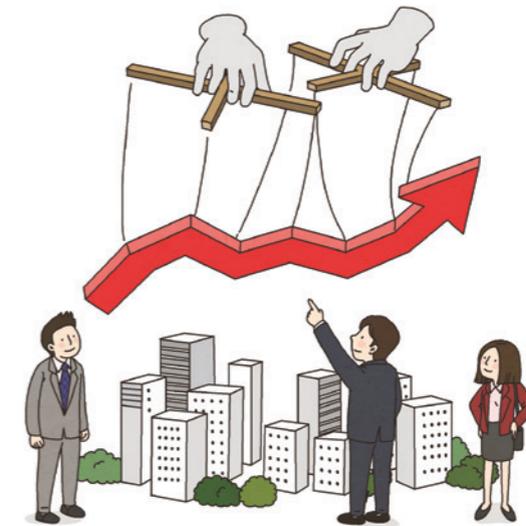
불법 주식거래의 유혹?

한국거래소가 이처럼 증권시장을 공정하고 건전하게 유지하려는 데에는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의 활성화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경제는 자유경제체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시장을 통제하거나 제한을 두면 경제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시장이 언제나 건전한 길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도에서 벗어난 편법과 불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증권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면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일정한 통제장치 역시 필요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에서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증권을 매매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속이거나 정보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증권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지될 수 없게 합니다.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는 시세조종과 내부자거래가 있으며, 시세조종과 내부자거래를 행한 자는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㉑ 시세조종



흔히 시세조종은 주가조작이라고 불립니다. 작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원래 주가는 시장의 수급 관계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그런데 주가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시세조종이라고 합니다.

주가조작의 목적은 매우 다양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투자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기도 합니다. 미리 사람들을 동원해서 매매거래가 많은 것처럼 꾸미고 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짜고 매매를 하는 것이죠. 아예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기도 합니다. 굳이 주가가 오르거나 내려가도록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일부러 주가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안정적인 주식으로 보이도록 유도하는 것도 주가 조작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거래자들이 공모하여 사전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거래자들은 발을 빼서 높은 부당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식을 '작전주'라고 하고 이러한 거래를 꾀하는 당사자들을 '작전세력'이라고 합니다. 작전세력에는 증권브로커와 큰손, 대주주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공모해 주식 값을 폭등시켜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꼭 목적이 주가조작에 의한 부당이득 취득에 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부동산학 강사가 자신의 예측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주가 조작에 개입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강사를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수강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많아질 테니까요. 목적이 어느 쪽이든, 시세조종은 사기행위이며 많은 투자자와 관련기업 등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서는 이런 행위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⑥ 내부자거래

내부자거래란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기타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중요정보를 증권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접 받아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계약체결 등 호재성 정보가 있는데 정보 공개 전에 해당 주식을 매수한 후 정보를 공개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가는 이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겠죠. 그러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매매차익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부도발생 등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정보 공개 전에 매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 정보공개 후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증권 의 투자판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 증권의 매매거래를 하려면 그 정보를 공개한 후 거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그 정보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그 증권의 매매를 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부자거래규제의 목적은 공정한 시장의 유지와 투자 자 보호 및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 제고에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는 불공정거래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예방 조치 요구, 조회 공시 요구, 시장 경보 정치, 투자 유의안내 등의 사전 예방 활동을 합니다.

06

정보 없는 성공은 없다

그렇다면 공정한 거래행위 속에서 성공적인 투자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주식은 '정보싸움'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다른 투자자가 갖고 있지 못한 정보수집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투자 정보의 원천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중요한 정보 매체도 많지만 우선 가장 기본적인 주식시세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세표

주식시세표는 간단히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발행하는 증권시장지, 증권회사에 설치된 주식시세판, TV, 신문 등에 발표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매체에 따라 그 형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거래현황이 담겨 있습니다. 시가와 종가, 최고가와 최저가 종목별 거래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증권시장의 거래현황을 보여주는 현황판이자 내일의 투자를 위한 작전지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지수(stock price index)

주가지수는 여러 종목의 주가를 평균한 수치이며,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주가수준이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주가지수는 주가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주로 주식시세표 상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가지수는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전체의 흐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주가라는 것이 미래의 경제 및 기업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 주가지수가 미래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표(leading indicator)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주가지수 산출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❶다우존스식과 ❷시가총액식입니다. 다우존스식은 주가만을 단순 평균 내는 것이고 시가총액식은 발행주식수를 감안하여 주가를 가중평균 내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가지수 계산방식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가지수는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이며 시장 전체 흐름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보다 자세한 시장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종별 지수, 규모별 지수는 물론 코스피200지수, 코스닥150지수, KRX300지수 등 다양한 주가지수를 산출, 발표하고 있습니다.

◦ **주식시세표의 정보** ◦

1. 종가

정규시장의 매매시간 종료 전 10분 동안 호가를 접수받아 단일가매매로 체결된 가격. 익일 가격의 등락폭 및 상·하한가를 결정하는 기준가격이 된다.

2. 시가

정규시장의 매매시간 시작 전 30분 동안 호가를 접수받아 단일가매매로 체결된 가격. 거래 당일의 개장가격으로 '시초가'라고도 한다.

3. 고가·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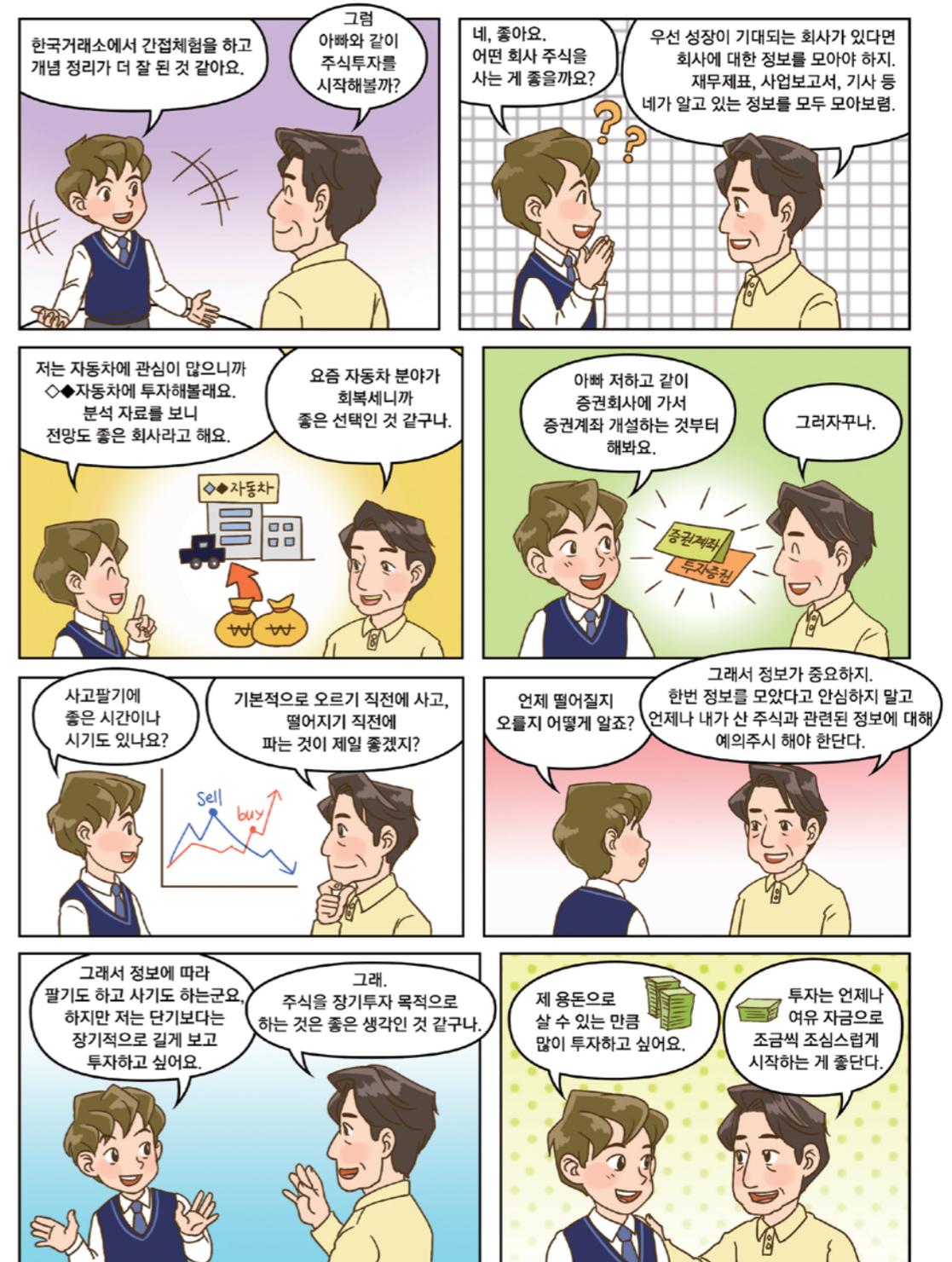
거래 당일에 체결가격 중에서 최고의 가격과 최저의 가격. 고가와 저가의 차이가 많이 나는 주식은 주가의 일일변동성(volatility)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전일비

거래 당일의 종가가 전일의 종가와 비교하여 얼마나 상승 또는 하락했는지를 기호와 수치로써 표현한 것. 가끔 종가 대신에 현재가를 전일종가와 비교하기도 한다. 가격이 상승한 경우 상승 폭과 "+"(일반적으로는 ▲로 표시)로 표시하며, 하락한 경우 하락 폭과 "-"(일반적으로는 ▼로 표시)로 표시한다.

5. 거래량

당일 하루 동안 매수 또는 매도된 총 주식 수를 표시하는데 이때 표시단위를 1주, 1,000주 등 주식시세표마다 다르게 표시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01 마시멜로우 이야기

02 사자는 한 마리의 토끼사냥에도 전력을 다한다.

03 현명한 주식투자의 원칙

04 돈에 대한 가치관이 미래를 결정한다.

MASTER PLAN

1	2	3	4	5	6	7

Chapter

6

투자, 이전에
가치관이
먼저다

6

투자, 이전에 가치관이 먼저다

01 마시멜로우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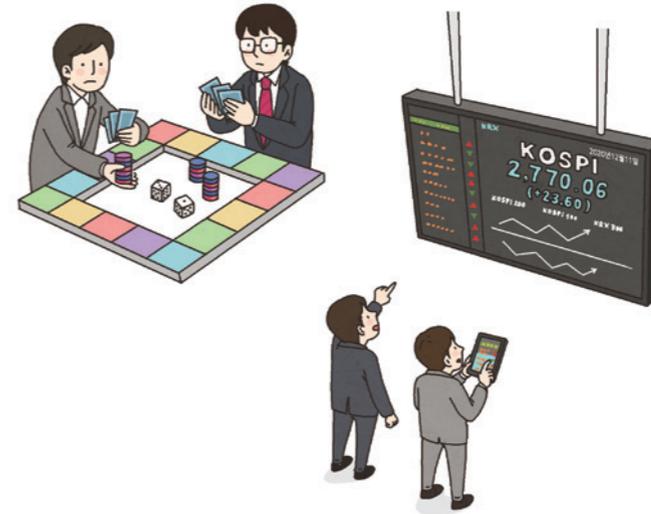
“얘야, 너에게 마시멜로우 1개를 줄게.
그리고 15분 뒤에 돌아왔을 때
이걸 먹지 않고 잘 참으면 상으로 1개를 더 줄 거란다.”



호아킴 데 포사다 작가의 「마시멜로우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5분을 잘 참은 아이에게는 마시멜로우를 하나 더 주겠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아이는 마시멜로우를 먹어버리고 말죠. 아이들에게 15분은 너무 긴 시간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그 중에도 먹지 않고 두 개를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몇 십 년 뒤에 이 아이들을 찾아보니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주식투자에도 해당됩니다.

투자는 현재에 소비 내지는 지출할 수 있는 것들을 미래로 미루어 더 큰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의 마시멜로우를 투자하여 두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누구나 투자를 하겠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식투자에는 15분 뒤에 마시멜로우를 주겠다고 보장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투자는 현재의 행위이며, 그 결과는 미래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이 있으며 투자자는 이 위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럼 도박도 투자인가요?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을 기대하는 거니까요.”

아닙니다. 도박은 투자가 아니고, 올바른 분석에 기초한 주식투자는 도박과 다릅니다. 도박은 온전히 운에 맡기는 행위이고, 주식투자는 기업의 성장 확률에 기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식투자는 주가의 움직임을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니다. 정보 분석과 예측에 근거하여 투자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성장을 돕습니다. 물론 도박도 확률게임이라고는 합니다. 게임의 참여자가 이득을 볼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또한 국익적인 면에서도 주식투자는 기업의 발전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만 도박은 가계를 파탄까지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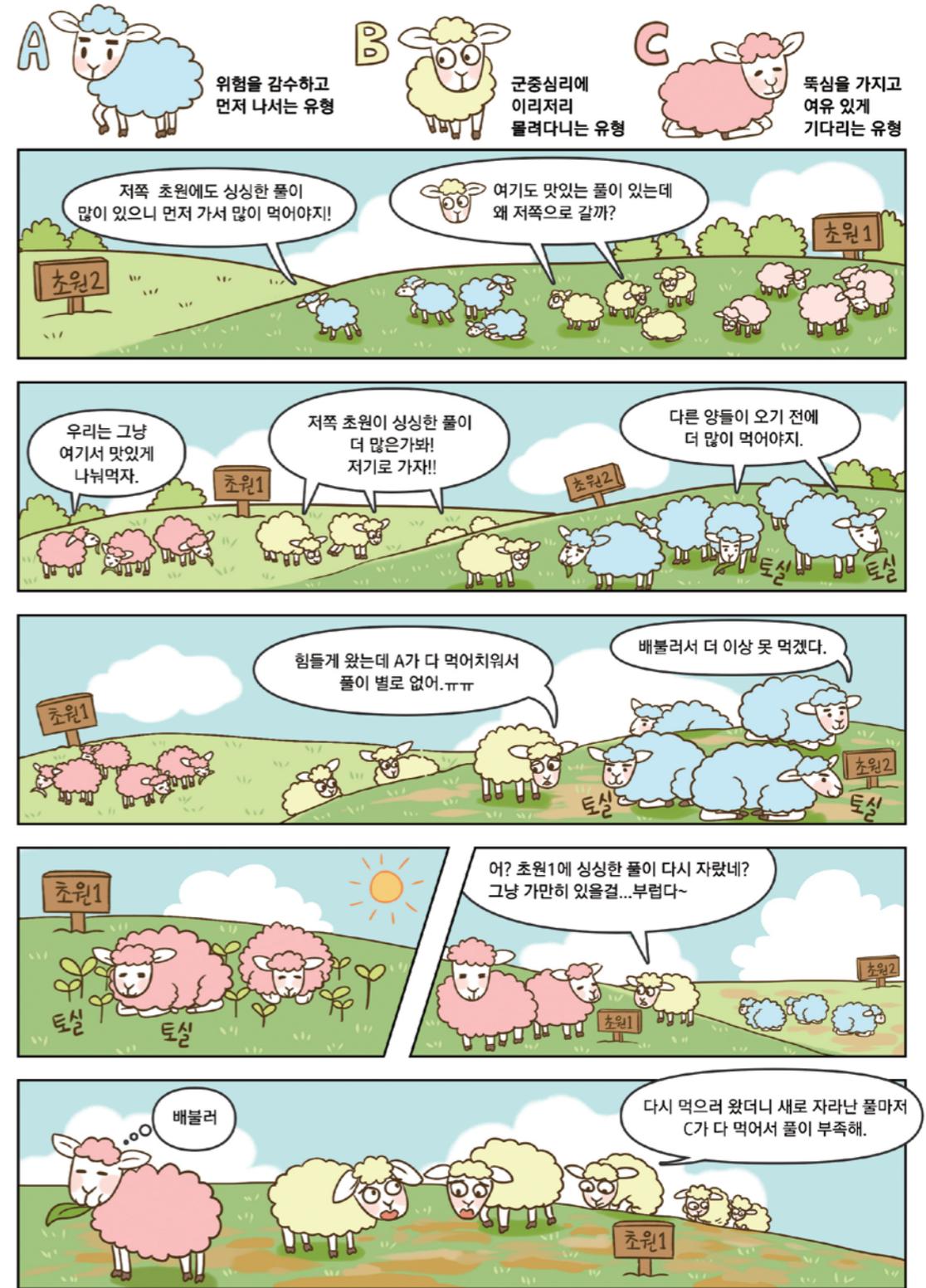


“이자를 바라고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것도 투자인가요?”

투자과 저축은 현재의 소비가 미래로 늦춰진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저축은 미래에 소비하기 위해 현재 쓸 돈을 아껴서 안전하게 모아둔 것입니다. 투자는 미래에 더 큰 가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은행에서 주는 이자 정도의 수익과는 다릅니다. 또한 저축은 위험이 없습니다. 투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산에 투입을 하는 것이며 어떤 상품을 고를 것인가, 언제 팔 것인가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즉, 은행은 은행 자체가 망하지 않는 이상 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투자는 원금이 줄어들 확률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럼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때로는 주식이 ‘투기’라고 생각하며 사행성 도박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도 올바른 투자 인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거나 증독 증세에 빠지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투자의 본질을 잊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투자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투자대상을 선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투기는 이러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막연히 투자를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위에서 설명한 도박과 다름없는 것이죠. 투기는 투자보다 좀 더 단기적이고 불확실성이 높은 이득을 추구합니다. 단 며칠만에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단기 시세급등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려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은 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W 02

사자는 한 마리의 토끼사냥에도 전력을 다한다.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전력을 다 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작은 일이라도 설령 설령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주식은 토끼와도 같습니다. 재빠르고 변화무쌍한 토끼처럼 주가는 주변 상황에 의해 빠르게 변화합니다. 주식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분야만 파고 든다고 해서 알 수 없습니다. 전력을 다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세상을 공부할 때 우리는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투자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1- 다양하게 배우고 다양하게 써먹을 것!



경제, 경영지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모두 투자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원리라면 경제학과,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여야겠지요? 하지만 경제 경영 분야는 복잡한 경제·경영 현상을 이해하고 풀어내는 데에 유용한 학문일 뿐입니다. 주가는 역사, 철학, 심리, 정치, 종교 등과 같이 투자와 전혀 무관해 보이는 분야의 지식까지도 도움이 됩니다. 특정한 분야만 아는 것은 오히려 다른 분야를 향한 시야를 가릴 수 있어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투자는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원인과 증상을 알아내고 그에 합당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의 눈,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는 판사의 머리가 있어야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를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대한 지식이 뒷받침 되어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2-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 상황에 관심을 가질 것!

유용한 투자정보를 누가 모아서 주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방대한 지식이 투자의 변수로 작용합니다. 정보는 어느 날 갑자기 수집할 수 없습니다. 꾸준히 기업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데이터가 쌓입니다. 단기간에 모을 수 있는 정보라고 해보아야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화제가 된 기업 뉴스 등이 고작입니다. 이 또한 참고할 사항이지만 기업의 가치는 단순 검색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기업의 이미지, 제품에 대한 평가 등은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정보는 따로 찾아 헤맬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이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쇼핑을 가서 주로 어떤 것들을 사는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반드시 갖춰놓고 있는 상품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분석자료를 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W 03

현명한 주식투자의 원칙

정보를 충분히 얻었다고 한들, 소신 없는 투자는 결국 실패로 이어집니다. 사람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은 각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원칙도 없이 어떻게든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증권시장에 덤벼든다면 100% 실패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는 도박, 투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준과 원칙을 스스로 정하고 성공을 노리거나 혹은 이익을 보지 않더라도 실패로 이어지지 않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실천할 수 있는 투자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투자원칙을 세울 때는 미리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손실의 정도, 투자 목표, 투자 기간, 투자 성향 등을 분명히 파악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볼 때까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원칙의 의미는 ‘어떤 행동이나 이론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원칙은 세우지 않은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이라면 이 원칙이 나에게 적용되어도 되는 것인지 고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정한 원칙은 지켜보고 옳은 방향인지 잘못된 방향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겪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평생 원칙 없이 주변 흐름에 휩쓸리게 되고 자기 평가의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둘째, 투자는 꼭 여유자금으로 해야 합니다.

간혹 ‘이번에 안 되면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전 재산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생각이 들어올 정도면,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중독 증상에

의해 불확실한 미래에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에 금전적 여유가 생겼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서 하는 것은 더욱이 위험합니다. 애초에 투자가 위험을 안고 시작하는 것인데, 여기에 위험을 하나 더 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투자자보다 불리한 위치에서 투자를 시작한다면 결과도 나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셋째, 잘 아는 종목에 투자해야 합니다.

‘올인’은 위험합니다. 100개 중에 50개는 A 회사, 50개는 B 회사에 투자한 사람은 100개를 A에 투자한 사람보다 위험이 덜합니다. A 회사가 망해도 B 회사에 아직 50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식에 대해 잘 모르거나, B 회사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분산투자가 좋다는 말만 듣고 B 회사에 분산투자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 B 회사가 망한다면, A 회사에 100개를 투자한 사람에 비해 큰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잘 아는 종목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분산투자를 목적으로 모르는 종목에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넷째,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주식이 오르는 날은 기쁘고, 주식이 떨어지는 날은 우울해하는 것이 투자자들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변동만 보고 주식을 팔았다가 샀다가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충분한 분석에 의해 고른 종목이라면 생각한 투자 기간 동안 믿고 꾸준히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애초에 불안한 종목이라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가에는 “돈은 머리로 버는 것이 아니라 영달이로 버는 것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결국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다섯째, 투자일기를 쓰도록 합니다.

정보는 늘 변화합니다. 오늘은 맞는 정보가 내일은 잘못된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항상 기록하고 변화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수많은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가 정말로 유용한 것인지를 가려내기란 어렵습니다.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기록하고 이러한 정보가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일정기간 동안 지켜본다면 좋은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우선할 것은, 주가가 어떤 이유로 움직이는지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가의 변동이 기업가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지, 시장 수급상황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에 따라 달리 대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이 미래를 결정한다.

이제 투자의 원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투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놓고 상품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철저히 비교 분석한 뒤에 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투자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과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험이 같다면 가급적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같다면 가급적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투자를 잘 한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번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지 못하면 남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 중에 ‘놀부’같다며 욕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놀부는 어떤 사람인가요? 심술궂고 욕심 많아 동생도 쫓아내고 자기가 재산을 다 차지했지요. 그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에도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래동화에서도 놀부는 도깨비에게 벌을 받습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벌기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투자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것 이상으로
돈에 대해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올바른 가치관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돈을 불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세 가지 습관을 꾸준히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용돈기록의 습관 형성

용돈기입장을 쓰는 것은 자신의 경제활동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어릴 적에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유용합니다. 용돈을 관리하며 여러분은 소비 주체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시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돈 기입장을 쓸 때는 스스로 예산을 세워서 돈을 써보고 월말에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결산까지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실질적 체험이 바로 소비 주체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2- 절약과 저축

저축은 주어진 소득에서 합리적인 소비 생활 이후에 남겨진 금액을 모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약이 바탕이 되어야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청소년 소비자는 소비 액수가 예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소비 욕구를 억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저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소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축은 나의 미래를 위한 준비이며 동시에 국가 전체의 투자로 이어지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소비습관과 태도를 길러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3- 육체노동을 통한 금전적 보상의 경험

노동을 통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용돈을 받아 관리하는 습관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땀을 흘려 한 푼이라도 벌여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는 집안일 돕기를 통한 보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라면 아르바이트의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을 하면 돈이 생긴다는 원리를 알아야 하고, 노동의 가치를 깨달아야 돈의 중요성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경제관념과 가치관

최근 주식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식에 관심을 보이는 청소년과 부모님들도 많아졌습니다. 물론 주식투자는 투자자가 직접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아예 관심도 가지지 말라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식이나 증권시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일확 천금의 수단으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돈과 주식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와 가정에서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들 역시 미래의 주역으로서 든든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바른 가치관을 키울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여는 청소년을 위한 증권과 투자 교실

발행일 | 2021년 12월

발행처 | 한국거래소

본사_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서울_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여의도동)

(<http://www.krx.co.kr>)

STAFF

글_집필스토리

디자인_킬링마리오

삽화_이은미, 이미지포유

Copyright©2021 KOREA EXCHANGE. All Right Reserved.

이책을 무단 복사, 복제, 전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협찬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자본시장 이해하기 시리즈

1 자본시장 이해하기 시리즈 ❶
똑똑한 어린이를 위한
증권과 투자 이야기

2 자본시장 이해하기 시리즈 ❷
미래를 여는 청소년을 위한
증권과 투자 교실

3 자본시장 이해하기 시리즈 ❸
초보 투자자를 위한
증권과 투자 따라잡기

